

2022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2022. 12.



2022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차 례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3
1)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	3
2)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	4
3)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대상	5
4) 보고서의 정규직/비정규직 분류와 한계	6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13
1)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와 주요 고용지표 현황	13
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3
나. 잠재실업률	16
다. 고용정책 중점대상	18
2) 임금노동자 규모	19
3) 임금노동자 특성	20
가. 개인적 특성	20
나. 산업별 분포	24
다. 직종별 분포	26
라. 사업체 규모별 분포	27
4)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28
가. 전체 임금노동자	28
나. 개인 특성별 차이	30
다. 산업별 차이	38
라. 직종별 차이	40
마. 사업체 규모별 차이	42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45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45
가. 전체 임금노동자	45
나. 성별 차이	46
다. 연령대별 차이	47
라. 학력별 차이	48
마. 근무기간별 차이	49
바. 산업별 차이	50
사. 직종별 차이	52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55
2)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	56
가. 전체 임금노동자	56
나. 성별 차이	60
다. 연령대별 차이	61
라. 학력별 차이	63
마. 근무기간별 차이	64
바. 산업별 차이	65
사. 직종별 차이	67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68
3)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비교	73
가. 전체 임금노동자	73
나. 성별 차이	74
다. 연령대별 차이	76
라. 학력별 차이	77
마. 근무기간별 차이	78
바. 산업별 차이	79

사. 직종별 차이	81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83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87
1)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87
가. 거주지 분포	87
나. 개인적 특성	88
다. 고용형태별 분포	90
라. 산업별-직업별 분포	91
2)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93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97
1) 일반적 현황	98
가. 산업5분류별 분포	98
나. 고용형태별 분포	99
다. 성별 분포	100
라. 연령대별 분포	101
마. 학력별 분포	102
바. 근무기간별 분포	103
사. 직종별 분포	104
2) 월평균 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106
6. 마무리하며 : 경기도 지역비교와 정책 함의	113

표 차례

[표 2-1] 수원시 기본 고용지표 현황	15
[표 2-2] 수원시 고용지표 총괄	16
[표 2-3] 수원시 고용정책 중점대상 추이	19
[표 2-4] 수원시 임금노동자 일반 현황	21
[표 2-5]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사업체 소재지	23
[표 2-6] 산업별 규모 및 비율	25
[표 2-7] 직종별 규모 및 비율	27
[표 2-8] 사업체 규모별 규모 및 비율	28
[표 2-9] 성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31
[표 2-10]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여부	31
[표 2-11] 월평균 임금 구간별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32
[표 2-12]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월평균 임금	32
[표 2-13]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연령대별 평균임금	34
[표 2-14]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38
[표 2-15] 산업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39
[표 2-16] 직종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41
[표 2-17]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42
[표 3-1]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45
[표 3-2] 성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47
[표 3-3] 산업별 비정규 노동자 규모 및 비율	51
[표 3-4] 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53
[표 3-5] 수원시 임금노동자 직종별-성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54
[표 3-6]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추이	57
[표 3-7]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60

[표 3-8]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61
[표 3-9]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63
[표 3-10]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64
[표 3-11]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66
[표 3-12] 직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및 비율	67
[표 3-13]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69
[표 3-14] 수원시 최저임금 미만자의 인적 특성	70
[표 3-15]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71
[표 3-16] 직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72
[표 3-17]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추이	74
[표 3-18]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4
[표 3-19] 수원시의 고용형태별-성별 노동시간 추이	76
[표 3-20] 연령대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6
[표 3-21]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7
[표 3-22]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79
[표 3-23]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80
[표 3-24] 직업별-고용형태별 노동시간	82
[표 3-25]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83
[표 4-1] 수원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거주지	87
[표 4-2]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89
[표 4-3]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율	90
[표 4-4]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산업별 규모 및 비율	91
[표 4-5]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직종별 규모 및 비율	93
[표 4-6]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94
[표 5-1] 수원시 산업5분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분포	99

[표 5-2] 수원시 산업5분류 성별 임금노동자 분포	101
[표 5-3] 수원시 산업5분류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비율	101
[표 5-4] 수원시 산업5분류 학력별 임금노동자 비율	103
[표 5-5] 수원시 산업5분류 근무기간별 임금노동자 비율	104
[표 5-6] 수원시 산업5분류 직업별 임금노동자 현황	105

그림 차례

[그림 2-1] 2022년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14
[그림 2-2] 2018년~2022년 수원시의 잠재실업률 추이	17
[그림 2-3] 수원시 잠재실업률 추이 : 15세~39세	18
[그림 2-4] 수원시 잠재실업률 추이 : 50세~69세	18
[그림 2-5] 수원시 임금노동자 규모 추이	20
[그림 2-6] 수원시 및 전국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추이	29
[그림 2-7] 수원시 및 전국의 월 임금 추이	30
[그림 2-8] 연령대별 임금	33
[그림 2-9] 연령대별 주당 노동시간	34
[그림 2-10] 학력별 월 임금	35
[그림 2-11]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36
[그림 2-12] 근무기간별 월 임금	37
[그림 2-13] 근무기간별 노동시간	37
[그림 3-1]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46
[그림 3-2]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47
[그림 3-3]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49
[그림 3-4] 사업체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49
[그림 3-5]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56
[그림 3-6]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시급액	58
[그림 3-7]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분포	60
[그림 5-1]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규모 추이	98
[그림 5-2] 수원시 산업5분류 기준 비정규직 비율 추이	100
[그림 5-3] 수원시 산업5분류별 월평균 임금 추이	106

[그림 5-4] 수원시 산업5분류별 주당 노동시간 추이	107
[그림 5-5]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 구간별 분포	108
[그림 5-6] 수원시 산업5분류별 시급액 수준	109
[그림 6-1]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별 임금수준	113
[그림 6-2]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별 주당 노동시간	114
[그림 6-3]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별 시급액	115
[그림 6-4] 경기도 지자체별 월 임금 200만원 미만자 비율	116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1. 지역별 고용조사 개요 및 보고서 목적

- 이 보고서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수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들의 기본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임금노동자들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2회 진행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유일.
 - 이 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고서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어떠한 분석을 진행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함.

1)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

-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기초지자체) 차원의 고용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 증대를 배경으로 2008년부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
 - 통계청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으로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본조사)와 거의 동일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전국의 시군구 단위별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현황 등의 내용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파악
- 아울러 확대된 조사대상 정보를 활용하여 대분류 기준 산업 및 직종별 취업자¹⁾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조사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08~2010년은 연간 1회, 2010 4/4분기부터 2012년은 연간 4회(분기별),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연간 2회(반기별) 조사를 진행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규모 : 약 32,000가구내 15세 이상 가구원
-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 규모 :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231,120가구내 15세 이상 가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2,000가구를 포함한 수치)

2)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

-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기본항목(5) : ① 가구주와의 관계 ② 성별 ③ 연령 ④ 교육정도 ⑤ 혼인상태
 - 확인사항(4) : ① 주된 활동상태 ② 취업여부 ③ 일시휴직여부 ④ 구직활동여부
 - 취업시간(3) : ① 주된 일 시간 ② 다른 일 시간 ③ 총 일한 시간
 - 구직사항(6) : ① 취업가능성 ② 구직경로 및 방법 ③ 구직기간 ④ 취업희망여부 ⑤ 비구직 사유 ⑥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 직장사항(8) : ①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 이직사유 ③ 산업(직장소재지) ④ 직업 ⑤ 종사상 지위 ⑥ 현직장 취업시기 ⑦ 월평균 임금 ⑧ 고용계약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1) 2018년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되었음. 직업대분류의 경우에는 10개 직종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산업대분류는 21개 업종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여 업종분류의 조정이 있었으며,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과 같은 대분류로 조정.

- <지역별 고용조사> 문항 중 기본항목과 직장사항 문항 중에서 개인 특성과 사업체특성을 독립변수(분류 기준)로 하여 총 근무시간(주업+부업), 월평균 임금 등을 종속변수로 임금노동자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간 비교가 가능
- 1) 개인특성 및 사업체특성(독립변수) :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산업(중분류), 직업(중분류), 종사상 지위(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노동자는 상용, 임시, 일용만 해당), 직장시작시기(근무기간), 사업체소재지(근무지)
- 2) 노동현황(종속변수) : 주된 일 시간/다른 일 시간/총 일한 시간, 월평균 임금

3)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대상

- 이 보고서는 1차적으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금노동자 현황 및 고용형태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전국 및 경기도 지역 현황과의 비교도 병행
- 이와 같은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로는 앞서 언급한 <지역별 고용조사>가 유일
- 따라서 2022년 4월 통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022년 11월에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황 및 고용형태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
 -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전국의 231,120가구내 15세 이상 인구 42만 5,439명(취업자 25만 3,502명, 실업자 5,709명, 비

경제활동인구 16만 6,22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수원시는 2,371명의 15세 이상 인구가 조사에 참여함

- 수원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수원시의 취업자는 1,404명, 실업자는 35명, 비경제활동인구 932명이며,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1,228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2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0명, 무급가족종사자 14명이 조사에 참여. 이하 분석에서는 조사 참여 임금노동자 수에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한 임금노동자 수를 활용²⁾

4) 보고서의 정규직/비정규직 분류와 한계

-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지만 통계청에서 매년 8월에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의 구체적인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
- 즉,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서 파악하는 한시적, 파트타임, 파견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호출근로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지역별 고용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유형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은 파악이 가능
-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임금노동자들의 기본 현황을 아래 기준에 입각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확인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새롭게 분류 : 종사상 지위(상용/임

2) 가중치 활용에 따라 각 항목별 합계치가 전체 합계 수치와 불일치할 수 있음.

시/일용), 고용계약기간 설정 여부, 총 일한 시간 3가지 변수를 활용³⁾

- 상용직의 경우 정규/비정규직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이하 계약직이 분명하므로 상용직 중에서 비정규직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했는가(기간제 여부)와 주당 노동시간 정보를 통해서 시간제 여부를 확인 가능
-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정규직 분류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류 작업을 진행
 - ① 임시직과 일용직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② 상용직이면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③ 상용직이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
 - ④ 상용직 중에서 ‘계약직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의 중복을 제거하고 정규직으로 정의
- 그럼에도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소위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실제 수원시의 비정규직 규모보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과소 추계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사용자가 둘 이상인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노

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비전형 고용(파견, 용역, 특수형태고용, 호출근로, 가내근로) 등 비정규직 유형을 조사하여 정규/비정규직을 분류하고 있으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비전형 고용 관련 문항이 없어서 간접고용 비정규 및 특수고용은 파악할 수 없음.

동자들은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이 아닌 임금노동자로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리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자영업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큼
- 비정규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임금노동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자료로서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 실태를 고용형태와 임금,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함
- 계약직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정규직만 분류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은 ‘수원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음

<참고> 통계청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분류기준

□ 상용직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직

- 고용계약 체결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 미체결자는 한시적 기간(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와 임금노동자 현황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원시 고용관련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함

1)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와 주요 고용지표 현황

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통계청에서 매월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
 - 이는 우선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⁴⁾로 구분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면서 학생, 주부, 취업포기자 등과 같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함
- 2022년 상반기⁵⁾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원시의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1,053,264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56,875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96,389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641,463명, 실업자는 15,412명임
 - 2021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수원시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1,041,058명, 경제활동인구는 632,434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08,624명.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608,482명, 실업자는 23,9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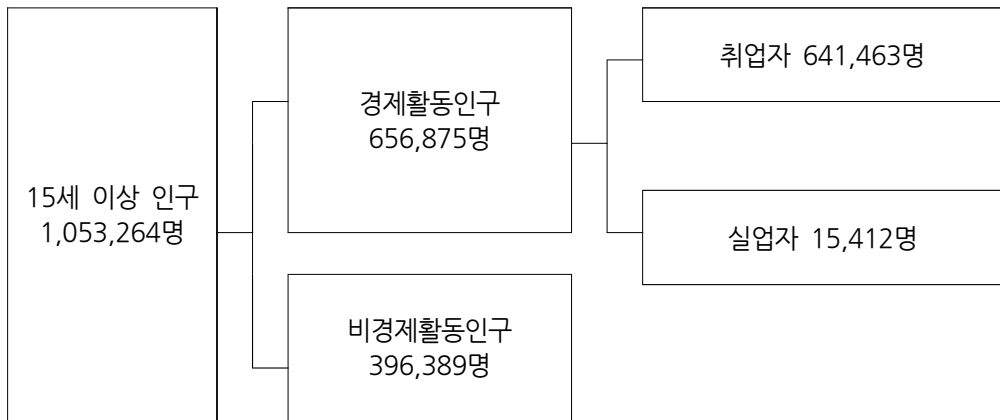
4) 실업자의 정의는 조사대상 주관을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바로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자로 정의. 구직활동 자체가 하나의 경제활동으로서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5) 이하 각 년도는 각 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의미함.

이였음

- 2021년 대비 2022년 수원시의 취업자는 32,981명 증가했으며, 실업자는 8,539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2,235명 감소해 전반적인 노동시장 지표는 전년 대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2021년 상반기는 노동시장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된 시기라는 점에서 기저효과를 고려할 필요

[그림 2-1] 2022년 수원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



- 2022년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62.4%,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은 60.9%,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비율)은 2.3%임
-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2018년~2019년에 증가하다 2020년~2021년은 코로나19로 하락한 후 2022년 들어서 다시금 회복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반면 실업률은 지난 5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표 2-1] 수원시 기본 고용지표 현황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활동 참가율	수원	61.6	63.1	61.1	60.7	62.4
	경기도	64.9	64.6	62.6	63.3	64.0
	전국	63.5	63.6	62.0	63.0	66.0
고용률	수원	58.7	60.4	58.8	58.4	60.9
	경기도	62.3	61.9	60.1	60.6	64.1
	전국	60.9	60.8	59.4	60.4	62.1
실업률	수원	4.8	4.3	3.8	3.8	2.3
	경기도	4.0	4.2	4.0	4.3	2.8
	전국	4.1	4.4	4.2	4.0	3.0

- 2022년 수원시 전체 고용률은 60.9%로 경기도 고용률 64.1%, 전국 평균 62.1%보다 낮음
 - 성별로 보면 남자의 고용률은 71.7%로 높은 수준인 반면, 여자는 50.2%로 낮은 수준에 있음
 - 연령별로 40대의 고용률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인구가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일자리가 적은 것으로 보임
 - 학력별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인력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아짐
- 실업자는 15,412명으로 남자가 8,654명, 여자가 6,758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천여 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실업자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7,66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별에서는 고졸이 7,829명으로 두드러졌음

[표 2-2] 수원시 고용지표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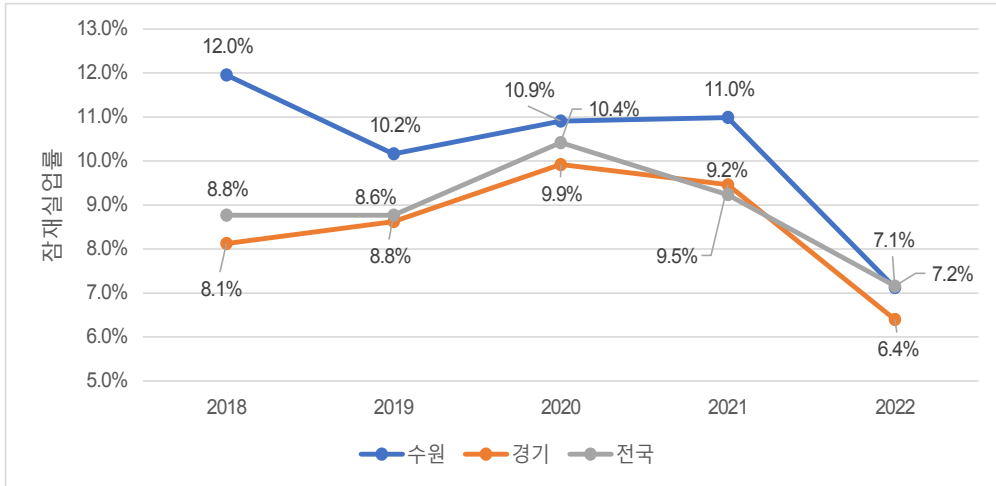
(단위 : 명, %)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잠재 실업률
전체		1,053,264	656,874	641,462	15,412	31,384	62.4	60.9	7.1
성 별	남자	525,159	385,193	376,539	8,654	13,649	73.3	71.7	5.8
	여자	528,105	271,681	264,923	6,758	17,735	51.4	50.2	9.0
연 령 구 분	15~39세	419,395	266,915	259,250	7,665	18,371	63.6	61.8	9.8
	40~49세	201,626	153,471	151,946	1,525	6,978	76.1	75.4	5.5
	50~69세	340,998	221,246	215,397	5,849	6,036	64.9	63.2	5.4
	70세 이상	91,245	15,243	14,870	373	0	16.7	16.3	2.4
학 력 구 분	중졸이하	169,661	49,017	47,029	1,988	1,321	28.9	27.7	6.8
	고졸	389,204	223,736	215,907	7,829	13,466	57.5	55.5	9.5
	전문대졸 이상	494,400	384,122	378,526	5,596	16,597	77.7	76.6	5.8

나. 잠재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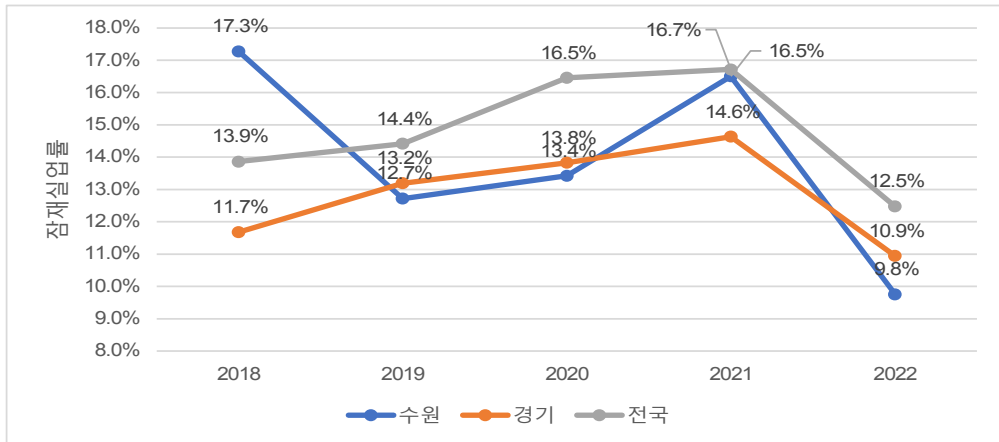
- 실업률과 잠재적 실업률 합계인 잠재실업률은 2022년 7.1%로 전년 11.0% 대비 큰 폭으로 감소. 2018년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추세지만 2022년 기준 수원시의 잠재실업률은 경기도 6.4%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며 전국(7.2%)치와는 거의 동일한 수준임
- 잠재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나 공시준비 노동력까지 포함하고 있음. 경기도에 비해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수원시에 더 많음을 의미

[그림 2-2] 2018년~2022년 수원시의 잠재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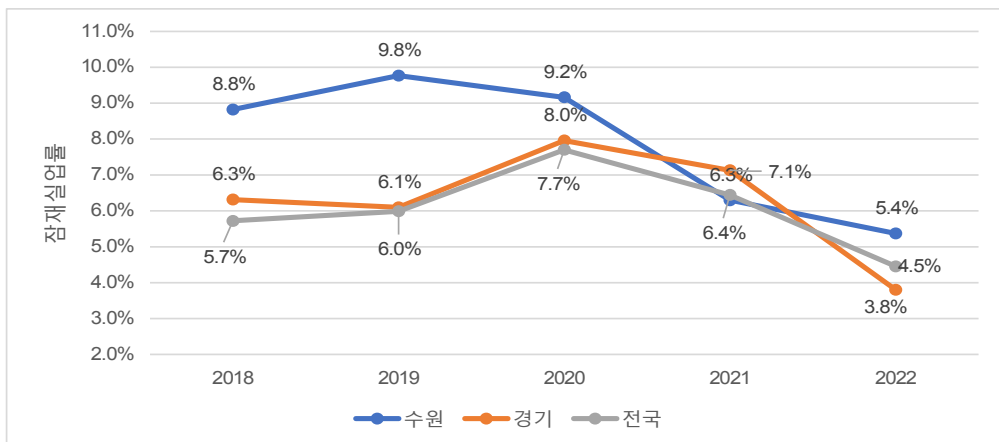


- 연령별 잠재실업률을 살펴보면, 수원시 청년층의 잠재실업률은 2018년 17.3%에서 감소 추세에 들어서며 전국과 경기도 평균 이하에 머물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6.5%로 상승 후 2022년에는 9.8%로 하락
- 5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18~2020년은 전국과 경기도 평균 잠재실업률보다는 높았지만 202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고령층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때문으로 추정

[그림 2-3] 수원시 잠재실업률 추이 : 15세~39세



[그림 2-4] 수원시 잠재실업률 추이 : 50세~69세



다. 고용정책 중점대상

- 고용정책 중점대상은 실업자와 잠재실업자를 합한 것.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얻으려는 인력이고 잠재실업자는 적절한 일자리만 제공된다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인력으로, 실제 지역에서 창출해야 할 일자리 총량을 추정하는 데 활용됨
- 일자리가 필요한 수원시 고용정책 중점대상이 2018년~2021년 기

간 동안 7만 5천여 명~6만 명대 후반에서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들어 전년 대비 2만 3천여 명이나 감소한 4만 6천여 명대를 기록

- 성별로는 남자가 22,300여 개 일자리, 여자가 24,500여 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
- 연령별로 30대 이하 청년층이 26,000여 개 일자리, 50~60대는 11,000여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수원시 고용정책 중점대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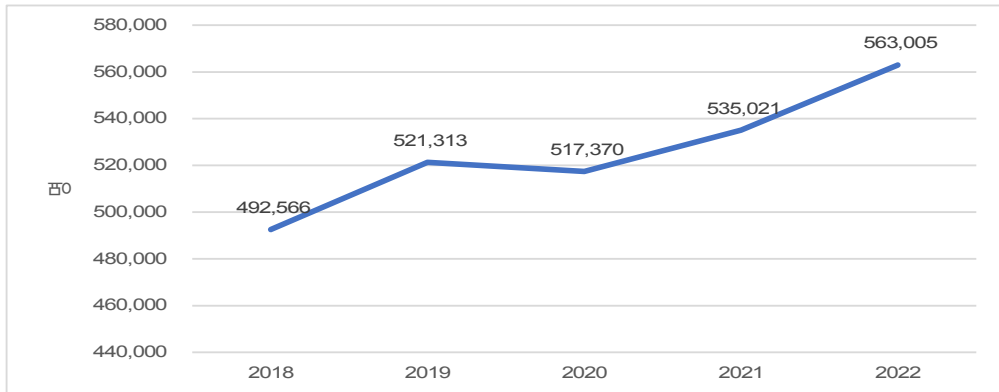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75,855	66,612	69,338	69,501	46,797
성별	남자	39,908	36,391	36,776	37,400	22,304
	여자	35,947	30,220	32,561	32,101	24,493
연령별	15~39세	45,192	33,829	34,835	42,437	26,036
	40~49세	11,747	10,318	12,482	11,234	8,503
	50~69세	17,334	20,457	18,547	13,028	11,885
	70세 이상	1,582	2,008	3,474	2,800	373

2) 임금노동자 규모

- 2022년 기준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 임금노동자 수는 563,005명으로 확인
- 수원시 임금노동자는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521,313명,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517,370명으로 약간 하락한 후 2021년에 535,021명으로 증가함. 그리고 2022년 다시금 27,000여 명 증가해 563,005명임

[그림 2-5] 수원시 임금노동자 규모 추이



3) 임금노동자 특성

가. 개인적 특성

- 2022년 상반기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7.8%, 여성이 42.2%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과 비교 시 남성 비중은 58.7%에서 비율이 줄어든 반면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41.3%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 연령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40대가 2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23.6%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인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추세. 30~50대 모두 20% 초반으로 이들 세대가 임금노동자의 주축임. 29세 이하 노동자와 60세 이상의 노동자 비율은 각각 19.6%, 11.7%로 같은 연령대의 전국 비율 16.6%, 14.7%인 것과 비교하면 수원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다소 젊은 편. 하지만 6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은 2018년 8.5%에서 2022년 11.7%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임금노동자가 61.6%, 고졸이 31.3%로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학력수준보다는 높은 편
- 현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보면 1년 초과~5년 이하의 비중이 31.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근속기간 10년을 초과한 노동자의 비중이 23.9%였으며, 수원시는 전반적으로 전국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근무기간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은 449,870명으로 79.9%, 임시직은 80,698명으로 14.3%, 일용직은 32,437명으로 5.8%로 확인
 -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상용직 비중은 높고, 임시직은 전국 대비 낮으며 일용직의 비중은 전국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

[표 2-4] 수원시 임금노동자 일반 현황

구분		수원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성	남성	325,689	57.8	11,826,540	55.0
	여성	237,316	42.2	9,679,168	45.0
연령	29세 이하	110,115	19.6	3,763,633	17.5
	30대	132,777	23.6	4,554,908	21.2
	40대	133,496	23.7	4,982,072	23.2
	50대	120,626	21.4	4,784,848	22.2
	60세 이상	65,991	11.7	3,420,246	15.9
	평균	42.9세		44.6세	
학력	중졸이하	39,668	7.0	2,306,734	10.7
	고졸	176,442	31.3	7,744,886	36.0
	전문대졸이상	346,894	61.6	11,454,088	53.3

구분		수원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근무 기간	6개월 이하	118,935	22.6	5,226,969	25.8
	6개월~1년 이하	31,952	6.1	1,481,407	7.3
	1~5년 이하	176,391	33.5	6,252,208	30.8
	5~10년 이하	73,541	14.0	2,875,132	14.2
	10년 초과	126,216	23.9	4,445,732	21.9
	평균	6.3년		6.2년	
종사상 지위	상용직	449,870	79.9	15,640,712	72.7
	임시직	80,698	14.3	4,714,833	21.9
	일용직	32,437	5.8	1,150,163	5.3
합계		563,005	100.0	21,505,708	100.0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 소재지를 파악하기에 이를 통해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취업자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임금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소재지 정보를 통해서 임금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수원시 노동자들이 수원시에서 일하는 비율은 51.2%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고 있음
 -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자체와 비교하면 거주 지역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는 수도권 지역이 사실상 단일한 노동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은 수원을 제외하면 기아차와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화성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73,318명(1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소재 회사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도

63,949명(11.4%)임. 이외에 용인시와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1만 명 이상으로 확인

- 서울로 출근하는 수원시 노동자수는 2020년 59,887명까지 감소한 이후 2021년 64,577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63,949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반면 화성시로 출근하는 노동자수는 2019년 65,520명, 2020년 60,402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다시금 64,776명으로 증가 후 2022년 7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경기도 화성시 지역이 수도권 서남부 중소 제조사업체의 이전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화성지역과 인접한 수원시 지역 노동자의 주된 일자리화 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

[표 2-5]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사업체 소재지

지역	인원(명)	비율(%)	지역	인원(명)	비율(%)
서울	63,949	11.4	경기의왕시	4,329	.8
인천	5,283	0.9	경기하남시	871	.2
경기수원시	288,047	51.2	경기용인시	41,647	7.4
경기성남시	22,210	3.9	경기이천시	5,086	.9
경기안양시	10,909	1.9	경기안성시	1,893	.3
경기부천시	411	.1	경기김포시	1,738	.3
경기광명시	898	.2	경기화성시	73,318	13.0
경기평택시	13,419	2.4	경기광주시	455	.1
경기동두천시	521	.1	경기양주시	420	.1
경기안산시	6,182	1.1	경기양평군	443	.1
경기고양시	1,448	.3	강원원주시	831	.1
경기과천시	1,302	.2	충북진천군	1,372	.2
경기남양주시	428	.1	충남천안시	490	.1
경기오산시	5,978	1.1	충남아산시	1,379	.2
경기시흥시	2,620	.5	충남당진시	428	.1
경기군포시	3,730	.7	충남홍성군	516	.1

나. 산업별 분포

- 수원시의 산업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살펴보면,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노동자는 없었으며, 21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에서는 제조업 노동자가 17.7%로 단일업종 중에서는 노동자수가 가장 많았음
 - 수원시 노동자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20.8%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5.8%로 급감한 후 2021년 16.7%, 2022년 17.7%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12.2%로 고용규모가 두 번째로 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지난해 10.6%에서 1만 2천여 명 이상 노동자수가 증가함. 그다음은 도소매업(10.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4%), 건설업(8.5%), 교육 서비스업(8.2%) 순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수원시 노동자의 산업별 규모와 비교하면 도소매업은 8.9%에서 10.4%로 규모와 비율치 모두 약간 증가했으며, 건설업이 9.4%에서 8.5%로 규모와 비율치 모두 약간 감소함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노동자 비중은 2020년에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후 미미하나마 2021년, 2022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별 분포의 특징
 - 전반적으로 제조업 노동자수는 줄어들고 서비스업 노동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도소매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 다만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아서 광의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6] 산업별 규모 및 비율

산업별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농림어업	-	-	105,623	.5
광업	411	.1	12,837	.1
제조업	99,922	17.7	4,052,455	18.8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893	.3	74,053	.3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4,154	.7	146,400	.7
건설업	47,896	8.5	1,706,354	7.9
도소매업	58,516	10.4	2,145,844	10.0
운수및창고업	22,677	4.0	968,397	4.5
숙박및음식점업	34,120	6.1	1,279,309	5.9
정보통신업	27,571	4.9	894,685	4.2
금융보험업	16,129	2.9	740,092	3.4
부동산업	8,015	1.4	379,398	1.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68,858	12.2	1,102,091	5.1
사업시설관리및지원, 임대서비스	31,489	5.6	1,348,102	6.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18,463	3.3	1,247,698	5.8
교육서비스업	46,354	8.2	1,622,565	7.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3,170	9.4	2,620,530	12.2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5,767	1.0	324,445	1.5
협회,단체,수리,기타서비스업	16,309	2.9	650,589	3.0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1,290	.2	71,165	.3

산업별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국제 및 외국기관	-	-	13,076	.1
합계	563,005	100.0	21,505,708	100.0

다. 직종별 분포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는데, 2021년 32.1%보다 비중이 더 높아졌음. 아울러 전국 평균치 24.6%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사무종사자가 20.8%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세 번째로 14.5%의 비율을 보임
- 반면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조립조작 종사자 등 주로 생산기능직에 해당되는 직종의 임금노동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임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직업별 특징은 연구 및 전문기술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수원시의 산업적인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산업별 현황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닌데도 생산기능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수원시의 제조업 내부 구성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즉 제조업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무직이나 기술직 등 비제조 직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7] 직종별 규모 및 비율

직업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관리자	3,463	0.6	401,094	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3,388	34.3	4,964,869	23.1
사무종사자	117,083	20.8	4,559,169	21.2
서비스종사자	40,322	7.2	2,179,630	10.1
판매종사자	32,916	5.8	1,521,817	7.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49,488	.2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45,283	8.0	1,813,383	8.4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48,973	8.7	2,245,857	10.4
단순노무 종사자	81,577	14.5	3,770,401	17.5
합계	563,005	100.0	21,505,708	100.0

라. 사업체 규모별 분포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300명 이상으로 21.6%를 차지함. 그다음으로는 10~29명 21.3%, 30~99명 17.7% 순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2.8%로 전국 대비 낮은 편
- 수원시의 임금노동자는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수원시 노동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100명 이상 규모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특히, 중·대기업(300명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1.6%로 전국 평균 14.7%보다 6.9%p 높게 나타남
-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뒤에서

살펴볼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높은 임금수준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 요인

[표 2-8] 사업체 규모별 규모 및 비율

규모	수원시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1~4명	71,785	12.8	3,737,756	17.4
5~9명	84,233	15.0	3,596,304	16.7
10~29명	119,964	21.3	4,866,314	22.6
30~99명	99,632	17.7	4,152,874	19.3
100~299명	65,753	11.7	2,138,635	9.9
300명 이상	121,638	21.6	3,013,825	14.0
전체	563,005	100.0	21,505,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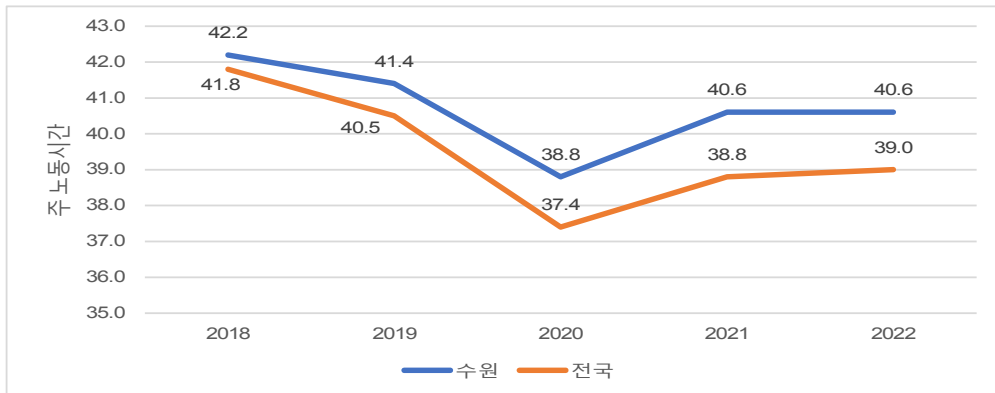
4)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가. 전체 임금노동자

- 2022년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주(週)당 평균노동시간은 40.6시간으로 전년과 동일함.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39.0시간과 비교하면 1.6시간 더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 42.2시간과 비교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1.6시간 감소
- 한국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꾸준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수원과 전국 모두 처음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수원시는 40시간 이상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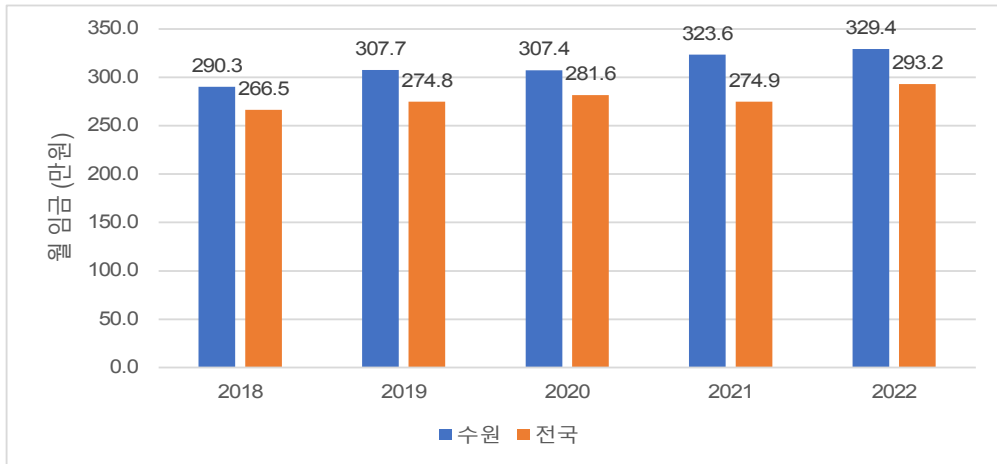
- 2020년 수원과 전국 모두에서 큰 폭의 노동시간 감소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은 코로나19와 조사기간 주중에 공휴일(총선)의 영향으로 노동시간이 크게 하락한 것

[그림 2-6] 수원시 및 전국 임금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추이



- 2022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29.4만 원으로 전국 임금노동자 평균 293.2만 원과 비교하면 약 36.2만 원 높은 편이지만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2021년 대비(48.7만 원) 다소 줄어들었음
- 2022년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임금은 전년 대비 5.8만 원가량 상승한 반면 전국의 노동자 임금은 평균 18.3만 원가량 상승하였기 때문

[그림 2-7] 수원시 및 전국의 월 임금 추이



- 주당 노동시간과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나. 개인 특성별 차이

(1) 성별

-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385.3만 원, 여성은 252.6만 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 노동자 임금은 65.6% 수준
- 남성 임금노동자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2.4시간, 여성은 38.0시간으로 노동시간의 격차는 남성이 4.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주 35시간 미만인 여성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23.6%로 남성 노동자 9.2%에 비해 확연히 높은 편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단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성별 임금격차(여성 노동자 임금/남성 노동자 임금)가 65.6%인데 반해 성별 노동시간 격차는 89.6%임. 성별 임금격차는 남녀

간 노동시간의 길고 짧음에도 원인이 있지만, 노동시간의 길고 짧음이 남녀 간 임금격차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표 2-9] 성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성별	수원시		전국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 노동시간
남자	385.3	42.4	345.7	41.2
여자	252.6	38.0	227.5	36.2
전체	329.4	40.6	293.2	39.0

[표 2-10]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여부

구분	시간제_36시간미만	전일제_36시간이상	전체
남자(명)	29,940	294,822	324,762
	9.2%	90.8%	100.0%
여자(명)	54,910	178,035	232,945
	23.6%	76.4%	100.0%
전체(명)	84,850	472,857	557,707
	15.2%	84.8%	100.0%

-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남성 중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은 8.5%인데 반해, 여성 노동자는 28.0%로 3배 이상 높음

[표 2-11] 월평균 임금 구간별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 원	200만원~300만 원	300만원~400만 원	400만원~500만 원	500만원 이상	전체
남자	10,132	17,426	85,653	82,368	45,723	84,389	325,691
	3.1%	5.4%	26.3%	25.3%	14.0%	25.9%	100.0%
여자	25,070	41,391	100,339	36,962	16,137	17,417	237,316
	10.6%	17.4%	42.3%	15.6%	6.8%	7.3%	100.0%
전체	35,202	58,817	185,992	119,330	61,860	101,806	563,007
	6.3%	10.4%	33.0%	21.2%	11.0%	18.1%	100.0%

- 시간제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일제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보다 더 큼
 - 1주 36시간 이상 노동자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72.0%이고,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65.6%. 전일제 여성 노동자보다 시간제 여성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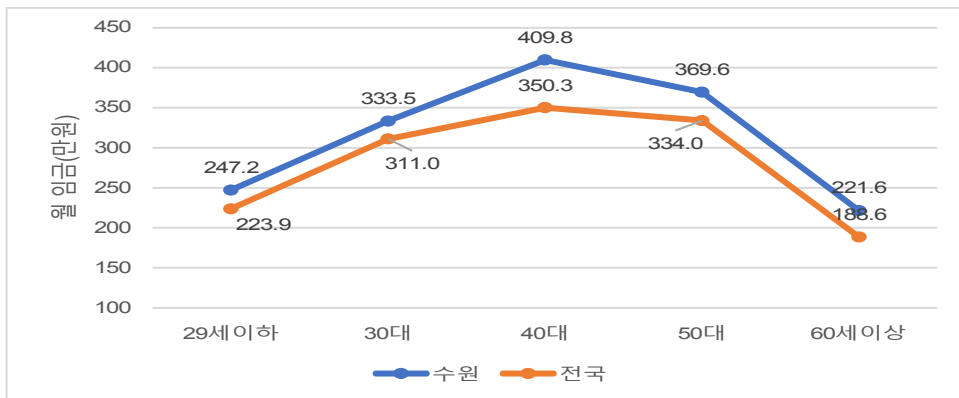
[표 2-12]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 전일제/시간제 월평균 임금

전일시간	성별	월 임금(만원)	성별 임금격차
시간제 : 36시간 미만	남자	189.7	65.6%
	여자	124.5	
전일제 : 36시간 이상	남자	405.5	72.0%
	여자	291.9	
전체	남자	385.6	65.5%
	여자	252.4	

(2)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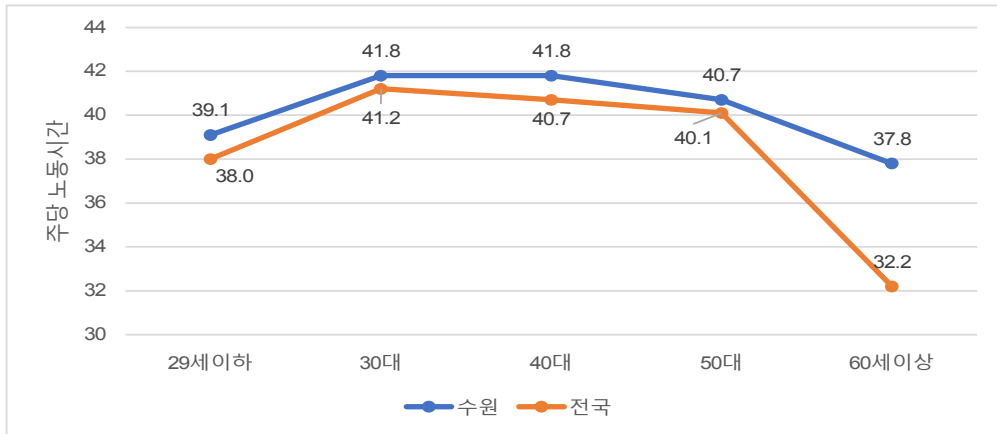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40대의 월평균 임금이 409.8만 원으로 가장 높고, 40대와 멀어질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짐
- 50대가 369.6만 원, 30대가 333.5만 원, 20대가 247.2만 원, 60대 이상이 222.6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 대비 수원시의 임금수준이 더 높음

[그림 2-8] 연령대별 임금



- 연령대별로 노동시간은 임금보다 격차가 크지 않음. 30대와 40대의 노동시간이 41.8시간으로 가장 길며, 그다음이 50대, 20대, 60대 이상 순서로 나타남

[그림 2-9] 연령대별 주당 노동시간



- 60대 이상에서 수원시의 주당 노동시간은 37.8시간으로 전국 평균 대비 확연히 긴 편임
- 연령대별-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남녀 간 격차는 20~30대에서 가장 적고, 40대 이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재진입하여도 예전과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일 것으로 추정

[표 2-13] 수원시 임금노동자 성별-연령대별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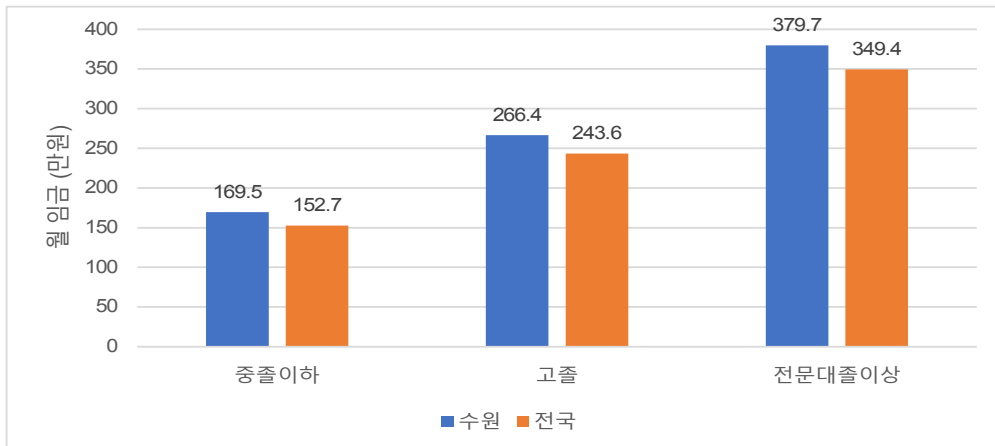
연령대	성별	평균(만원)	성별 임금격차
20대 이하	남자	267.8	85.5%
	여자	229.0	
30대	남자	369.9	75.6%
	여자	279.4	

연령대	성별	평균(만원)	성별 임금격차
40대	남자	478.0	62.7%
	여자	299.9	
50대	남자	456.0	55.0%
	여자	250.7	
60대 이상	남자	260.5	58.5%
	여자	152.3	
전체	남자	385.3	65.5%
	여자	252.6	

(3)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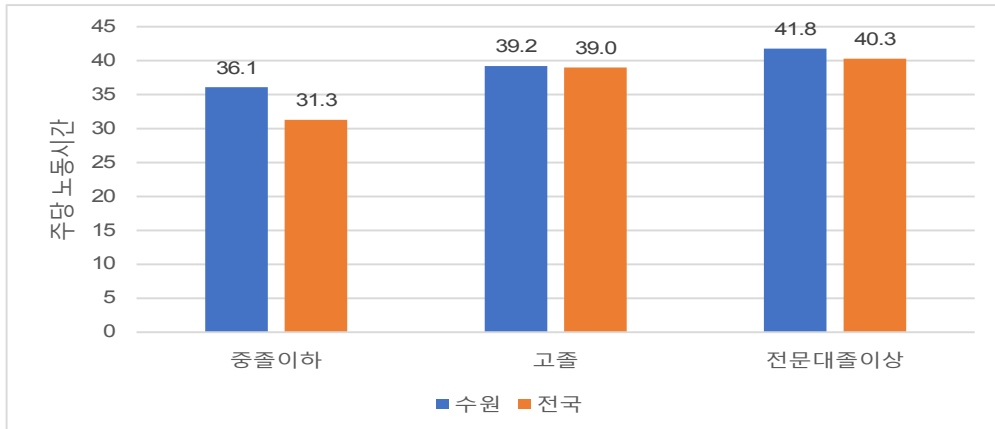
-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5만 원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44.6%에 불과함

[그림 2-10] 학력별 월 임금



- 노동시간도 학력과 정의 관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임금처럼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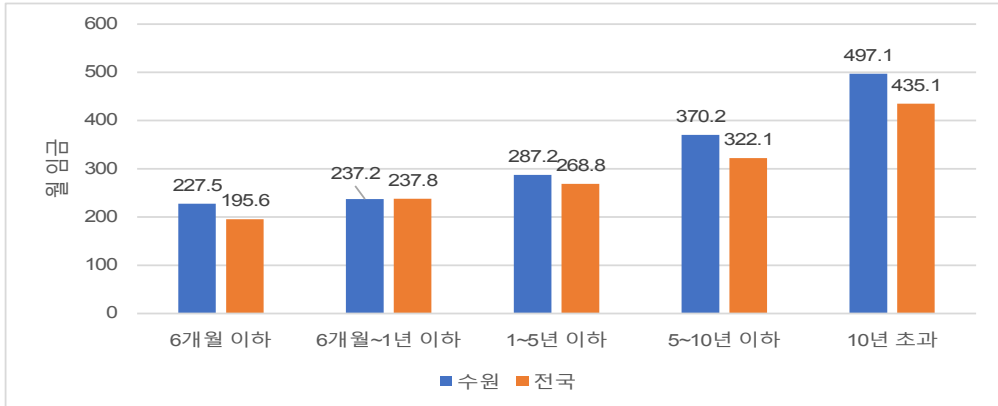
[그림 2-11]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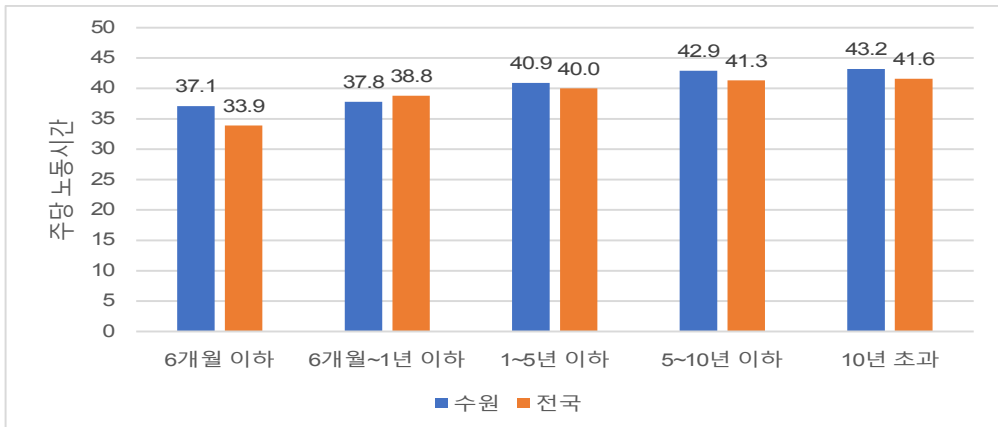
(4) 근무기간별

-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월평균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노동시간에서는 근무기간과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편임
-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이 좋은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다는 점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림 2-12] 근무기간별 월 임금



[그림 2-13] 근무기간별 노동시간



(5) 종사상 지위별

- 수원시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70.4만 원으로 임시직 161.2만 원과 일용직 178.7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음
 -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의 43.5%, 일용직은 48.2% 수준임
- 주당 노동시간도 임시직과 일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각 74.4%와 75.5%로 월평균 임금보다는 비율이 높음

- 임금 대비 노동시간 격차가 작다는 점에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시급액이 상용직 대비 낮다는 점을 의미

[표 2-14]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종사상 지위	수원시		전국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노동시간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노동시간
상용직	370.4	42.8	335.4	41.7
임시직	161.2	31.9	149.5	29.6
일용직	178.7	32.3	179.7	32.8
전체	329.4	40.6	293.2	39.0

다. 산업별 차이

- 산업별로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월평균 540.0만 원이었음. 그다음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91.1만 원, ‘금융 및 보험업’ 443.3만 원 순임
-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으로 96.4만 원, ‘예술스포츠여가업’이 168.6만 원, ‘숙박음식점업’이 180.7만 원 순서임
- 수원시에서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2022년 평균임금은 390.8만 원으로 2021년 392.4만 원보다 약간 임금이 하락
- 2022년 전국의 제조업 평균임금 337.3만 원보다는 53만 원 이상 높은데, 이는 수원시 인근의 전자 및 자동차 관련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

[표 2-15] 산업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산업	수원시		전국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농업, 임업 및 어업	-	-	205.1	37.5
광업	250.0	40.0	331.9	43.2
제조업	390.8	42.5	337.3	42.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40.0	43.1	443.2	4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19.6	41.9	310.1	42.1
건설업	310.5	42.3	302.9	40.5
도매 및 소매업	272.2	40.4	269.1	39.5
운수 및 창고업	295.0	44.6	298.3	42.7
숙박 및 음식점업	180.7	36.3	175.9	35.6
정보통신업	416.7	41.5	393.0	40.8
금융 및 보험업	443.3	42.4	412.6	40.2
부동산업	229.6	40.3	254.1	4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91.1	43.2	411.9	4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39.4	43.4	237.2	40.3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3.8	38.4	295.8	36.5
교육 서비스업	301.1	36.2	295.3	3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9.9	37.2	215.9	3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8.6	30.9	230.3	3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3.4	37.3	232.2	39.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6.4	20.7	108.8	28.0
국제 및 외국기관	-	-	386.4	38.7
전체	329.4	40.6	293.2	39.0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두 번째 규모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2022년 평균임금은 491.1만 원으로 수원시 평균임금 329.4만 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노동자수가 세 번째로 많은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272.2

만 원으로 전국 269.1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준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 중에서 숙박및음식점업(180.7만 원), 부동산업(229.6만 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업(239.4만 원),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168.6만 원),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243.4만 원),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96.4만 원) 산업의 평균임금이 250만 원 미만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임을 확인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들의 경우에는 업종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활임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최저임금제도와 병행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주 또는 노동자들에게 낮은 인건비/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역 내 임금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지역 내 소비활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
- 주당 노동시간은 임금처럼 격차가 크지 않음. ‘운수 및 창고업’이 44.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30.9시간으로 가장 짧아 그 격차는 13.7시간

라. 직종별 차이

- 직종별로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관리자’로 683.6만 원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423.7만 원, ‘사무종사자’ 352.7만 원 순이었음
- 산업에서 고임금업종인 전문연구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16] 직종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직종	수원시		전국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관리자	683.6	45.6	677.1	4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23.7	41.2	367.6	39.8
사무 종사자	352.7	42.1	336.1	40.6
서비스 종사자	185.6	34.0	197.7	35.6
판매 종사자	232.2	38.4	238.5	38.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248.8	4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96.6	42.3	294.8	41.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32.9	43.3	302.5	43.1
단순노무 종사자	183.6	38.1	161.9	33.4
전체	329.4	40.6	293.2	39.0

-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 로 183.6만 원이며, 그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 로 185.6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음
- ‘관리자’ 와 ‘단순노무 종사자’ 의 임금격차는 월 499.9만 원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임금은 ‘관리자’ 의 26.9% 수준
- 노동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관리자’ 직종으로 1주에 45.6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고, 가장 짧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 로 34.0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
-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직종별로 노동시간의 격차는 있으나 그 격차가 임금격차만큼 크지 않음

-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월평균 임금이 높고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남

마.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은 높아지는 것이 확인. 수원시 5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이 205.7만 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486.9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42.2%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주당 노동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5인 미만 사업체의 주당 노동시간이 37.6시간으로 300명 이상 사업체 노동시간 42.7시간에 비해 5.1시간 짧은 편

[표 2-17]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사업체 규모	수원시		전국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월평균 임금 (만원)	주당노동 시간
1~4명	205.7	37.6	199.6	35.7
5~9명	237.9	38.7	237.5	37.9
10~29명	281.5	39.7	270.4	38.8
30~99명	332.9	41.1	308.3	39.9
100~299명	372.2	43.0	344.6	41.3
300명 이상	486.9	42.7	440.7	41.3
전체	329.4	40.6	293.2	39.0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3.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앞서 분류한 원칙에 따라 수원시 임금노동자 563,005명의 고용형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378,881명이 정규직이었으며 비정규직은 184,124명.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7%

[표 3-1]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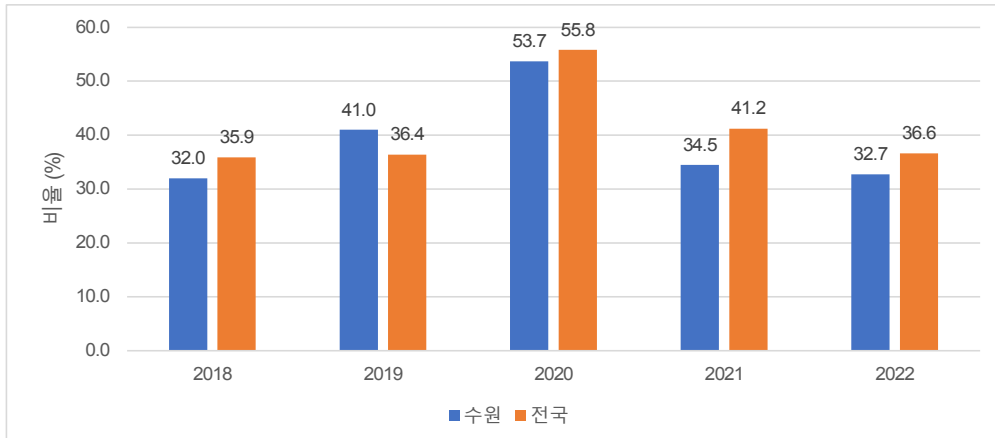
구분		상용	임시	일용	전체
고용 계약	정함	52,155	31,307	3,258	84,400
	정하지 않음	397,716	49,391	29,179	476,286
노동 시간	시간제_36미만	27,446	41,005	16,400	84,851
	전일제_36이상	417,127	39,693	16,037	472,857
정규직		378,881	0	0	378,881
비정규직		70,989	80,698	32,437	184,124
전체		449,870	80,698	32,437	563,005

* 상용직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중복 제거

- 2018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8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0%에서 2020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53.7%로 증가. 2021년에 34.5%로 하락한 후 2022년에는 또다시 떨어져서 32.7%를 기록
- 2020년 상반기 비정규직 노동이 급증한 것은 대부분 주36시간 미

만 상용직이 급증했기 때문임

[그림 3-1]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나. 성별 차이

-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 남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2022년 27.0%로 전년도 27.2% 대비 약간 감소. 전국 남성 비정규직 비율 30.0%와 비교했을 때 수원시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조금 낮은 편
- 수원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40.6%로 전년도 44.5% 대비 약간 감소. 전국 여성 비정규직 비율 48.4%보다는 낮음

[표 3-2] 성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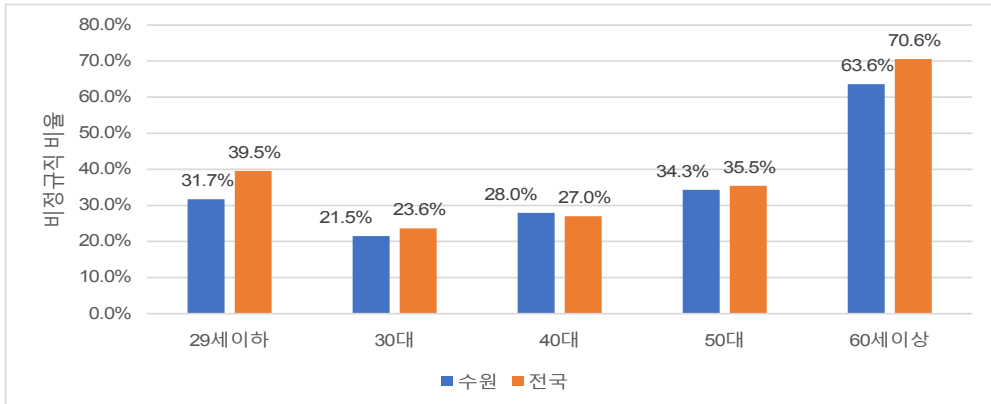
(단위 : 명)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a)	전체노동자(b)	(a/b)
수원	남성	237,800	87,889	325,689	27.0%
	여성	141,082	96,235	237,317	40.6%
전국	남성	7,934,195	3,892,345	11,826,540	32.9%
	여성	4,994,700	4,684,468	9,679,168	48.4%

다. 연령대별 차이

-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1.5%로 30대가 가장 낮았으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0.3%p~3.4%p 감소하였음

[그림 3-2]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 2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31.7%로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39.5%와 비교시 확연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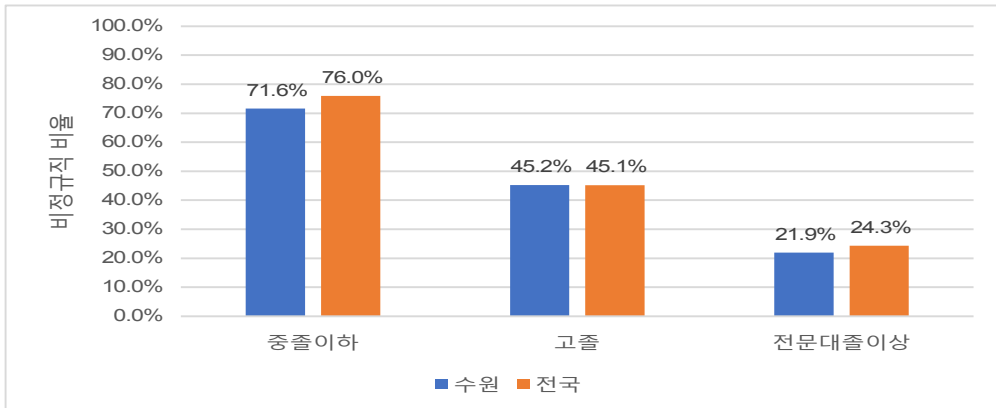
20대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노동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

-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은 63.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2021년 67.0%, 2020년 71.4%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편
 - 6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정년퇴임 연령 이후의 재취업이라는 점, 신체적 기능 저하로 장시간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60세 이후 정규직 고용기회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은 63%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대와 함께 고령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고령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화보다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근무여건 개선(휴식휴게시간의 충분한 보장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권리 등)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

라. 학력별 차이

-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에서는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는 사실상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결과. 즉,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령층 노동자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 수원시 고졸의 비정규직 비율은 중졸 이하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4%p 낮음
 - 수원시 중졸 이하 노동자 71.6%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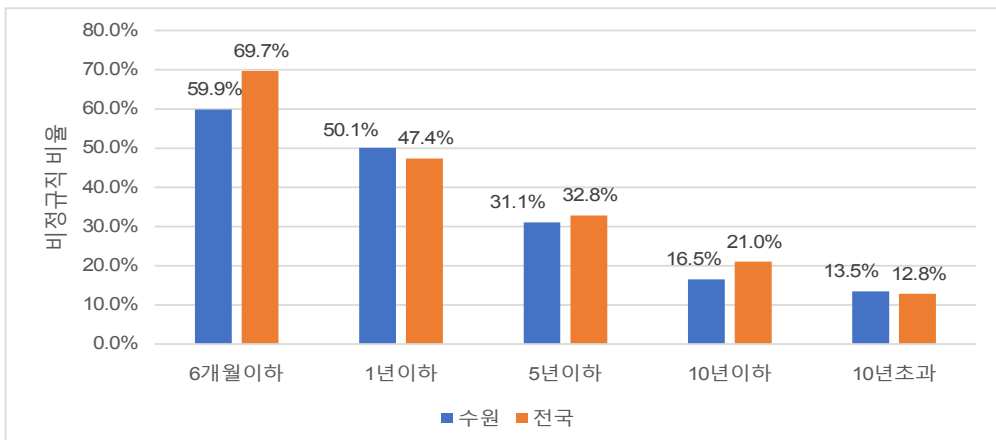
[그림 3-3]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마. 근무기간별 차이

- 수원시 노동자의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을 확인한 결과 취업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까지 근무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이상인 것으로 확인. 이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수인 데다, 단기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그림 3-4] 사업체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



- 수원시 및 전국 모두에서 노동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일관되게 낮아지고 있음
 - 아울러 전국의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초과~1년 이하와 10년 초과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수원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 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10년 초과인 수원시 장기근무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13.5%로 수원시 평균과 비교시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전국 평균 12.8%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현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임시일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통계청의 조사지침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는 노동자로 추정(통계청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미가입이거나, 퇴직금 미지급 대상 등 공식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분류)

바. 산업별 차이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수원시에서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2022년 비정규직 비율은 16.3%로 전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전년도 11.9% 대비 4.4%p 증가함
 - 수원시뿐 아니라 대체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작성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며, 8시간의 표준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
 - 노동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도 비정규직 비율이 12.4%로 전국 대비 낮은 편이며, 노동자 규모가 세 번째인

도소매업의 경우도 비정규직 비율이 26.1%로 전국 37.5%보다 낮은 편임

[표 3-3] 산업별 비정규 노동자 규모 및 비율

(단위 : 명)

산업	수원		전국	
	노동자수	비율	노동자수	비율
농림어업	-	-	78,119	74.0%
광업	-	-	2,347	18.3%
제조업	16,257	16.3%	784,100	19.3%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856	45.2%	9,609	13.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490	11.8%	36,585	25.0%
건설업	24,475	51.1%	935,187	54.8%
도소매업	15,286	26.1%	804,007	37.5%
운수및창고업	6,656	29.4%	339,786	35.1%
숙박 및 음식점업	21,407	62.7%	873,061	68.2%
정보통신업	5,889	21.4%	185,354	20.7%
금융보험업	6,952	43.1%	303,014	40.9%
부동산업	5,688	71.0%	201,411	53.1%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8,516	12.4%	203,053	18.4%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업	14,794	47.0%	759,344	56.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5,681	30.8%	461,046	37.0%
교육서비스업	19,538	42.1%	732,151	45.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41	38.1%	1,325,067	50.6%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3,989	69.2%	191,972	59.2%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6,119	37.5%	278,760	42.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1,290	100.0%	70,648	99.3%
국제 및 외국기관	-	-	2,194	16.8%
합계	184,124	32.7%	8,576,815	39.9%

- 1만 명 이상이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수원시 평균(32.7%)보다 높은 산업으로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사업시설관리및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임
 - 반면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업종
- 노동자 규모 1만 명 이상 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평균과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수원시의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대비 낮은 편
 - 노동자 규모 1만 명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기가스증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업에서 전국 대비 높은 편

사. 직종별 차이

- 수원시의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2.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 사무종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14.4%에 불과하고 제조업 기능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도 비정규직 비율이 20.2%로 약간 낮은 편임
-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65.6%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p)와 단순노무 종사자(0.5%p) 직종임

[표 3-4] 직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단위 : 명)

직업	수원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수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노동자수	비정규직 비율
관리자	0	0.0%	31,930	13.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2,731	22.1%	1,239,336	24.6%
사무종사자	16,893	14.4%	801,953	17.4%
서비스종사자	25,375	62.9%	1,134,196	56.4%
판매종사자	17,595	53.5%	716,845	51.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22,889	51.7%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8,148	40.1%	697,953	40.6%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9,887	20.2%	470,273	21.1%
단순노무 종사자	53,495	65.6%	2,379,458	74.9%
합계	184,124	32.7%	7,494,833	36.6%

- 직종별-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전 직종에서 모두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율이 높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직종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이 가장 뚜렷한 직종은 ‘판매종사자’로 나타남

[표 3-5] 수원시 임금노동자 직종별-성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남성 대비 여성의 '비정규직/정규직'
관리자	남자	3,002	-	-	-
		100.0%	-	-	
	여자	461	-	-	
		100.0%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남자	95,227	20,251	21.3%	1.91
		82.5%	17.5%		
	여자	55,430	22,479	40.6%	
		71.1%	28.9%		
사무종사자	남자	48,169	6,352	13.2%	1.54
		88.3%	11.7%		
	여자	52,021	10,540	20.3%	
		83.2%	16.8%		
서비스종사자	남자	5,902	5,829	98.8%	2.19
		50.3%	49.7%		
	여자	9,044	19,546	216.1%	
		31.6%	68.4%		
판매종사자	남자	9,546	4,677	49.0%	4.56
		67.1%	32.9%		
	여자	5,776	12,918	223.6%	
		30.9%	69.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남자	-	-	-	-
		-	-	-	
	여자	-	-	-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남자	26,272	16,289	62.0%	3.47
		61.7%	38.3%		
	여자	864	1,858	215.0%	
		31.7%	68.3%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남성 대비 여성의 '비정규직/정규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남자	34,984	8,927	25.5%	0.92
		79.7%	20.3%		
	여자	4,102	961	23.4%	
		81.0%	19.0%		
단순노무종사 자	남자	14,697	25,563	173.9%	1.20
		36.5%	63.5%		
	여자	13,385	27,932	208.7%	
		32.4%	67.6%		
전체	남자	237,799	87,888	37.0%	1.85
		73.0%	27.0%		
	여자	141,083	96,234	68.2%	
		59.4%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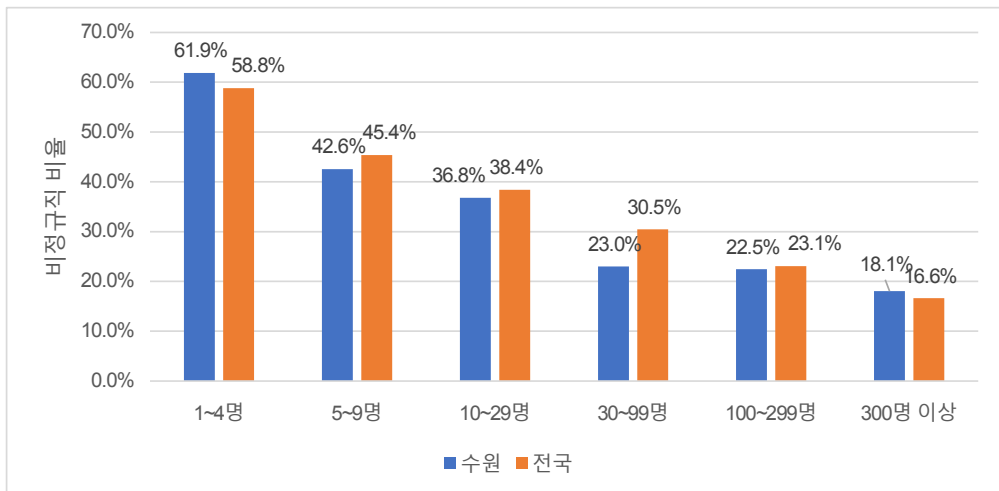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61.9%인데 반해,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18.1%로 3.4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별 고용조사는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파악하지 않음.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8.1%보다는 훨씬 더 높음
- 수원시의 5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는데 반해, 5인 미만과 300인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
 -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18.1%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약간 높지만 전년도 11.7%에서 6.4%p나 증가함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국면에서 대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증

가한 결과로 판단됨

-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5인 초과~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대비 낮지만,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남
- 수원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이 필요

[그림 3-5]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2)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먼저 정규직의 경우 2019년 369.8만 원에서 2022년에는 384.4만 원으로 약 14.6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전년도 정규직 임금이 384.9만 원이라는 점에서 2022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된 상태

[표 3-6] 수원시 임금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2022년
월평균 임금 (만원)	정규직(a)	369.8	371.3	384.9	384.4	351.3
	비정규직(b)	218.4	252.3	207.5	216.1	192.7
	평균	307.7	307.4	323.6	329.4	293.2
	b/a(%)	59.1%	68.0%	53.9%	56.2%	54.9%

-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9년 218.4만 원에서 2022년 216.1만 원으로 약 2.3만 원가량 낮아짐. 전년도에 비하면 8.6만 원가량 높아졌지만 2019년과 비교시에는 정체된 상황임
 - 2020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는 36시간 미만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임금도 같이 높아졌음. 이는 2019년까지 정규직(상용직)이었던 노동자가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시간이 단축·감소되면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크게 끌어올린 것
 -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상용)직 36시간 미만자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급감함
- 노동시간을 고려한 임금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후술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평균시급을 계산하여 비교
 - 이 보고서에서 시급액은 주휴를 고려해 아래의 산식에 입각해 산출함
 - i)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당 노동시간} + \text{유급휴무}8\text{시간}}$$

ii)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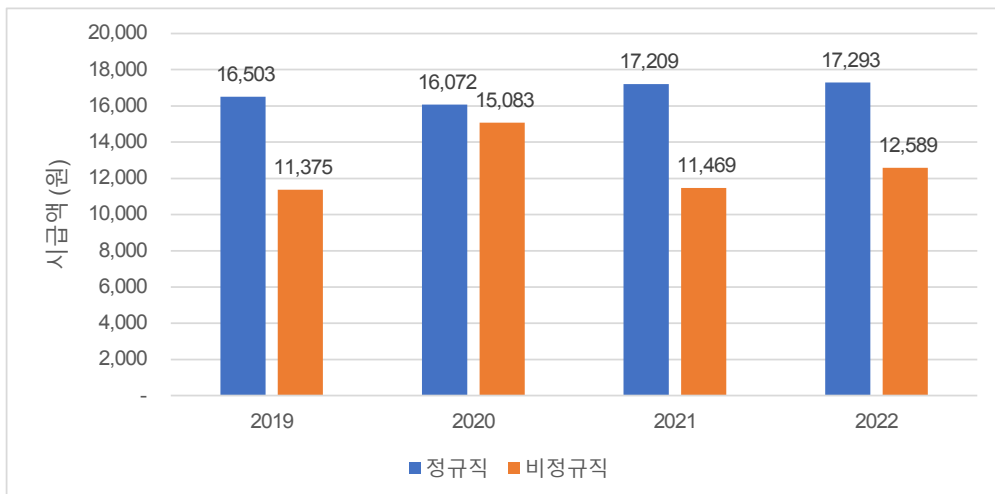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당노동시간} + 8\text{시간} \times \frac{\text{주당노동시간}}{40\text{시간}}}$$

iii)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text{시간당임금} = \frac{\frac{\text{월평균임금} \times 12\text{개월}}{365\text{일}} \times 7\text{일}}{\text{주당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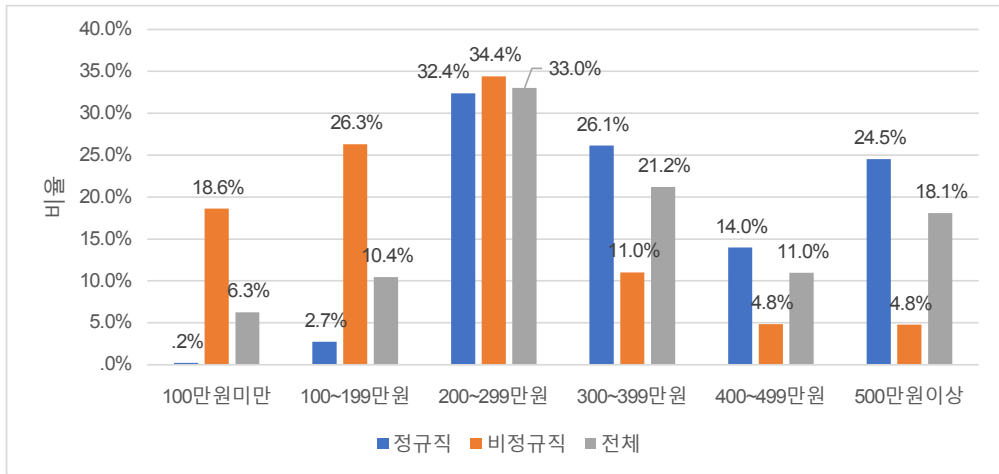
- 2022년 수원시 노동자 시급은 15,748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시급은 각각 17,293원과 12,589원이며, 정규직 시급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시급은 72.8% 수준임
- 정규직 평균시급은 2021년 17,029원에서 2022년 17,293원으로 약 264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평균시급은 2021년 11,469원에서 1,120원가량 증가한 12,589원으로 비정규직 시급액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그림 3-6]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시급액



- 학력이나 숙련, 작업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 해당 산업 및 회사 규모 등의 사업체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시급액(주휴 산입) 격차를 검토한 것임
- 다음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분포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고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살펴볼 것임
 - 2022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209시간 기준 월 1,914,440원이며,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의 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층으로 확인하였고 100만 원 단위로 고용형태별 노동자 분포를 확인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20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비율은 16.9%로 전년 21.0% 대비 약간 감소함. 정규직은 2.9%인 반면, 비정규직은 44.9%가 월 200만 원 미만으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200만 원 미만자 비율치가 전년 대비 감소함
 - 반면 월 400만 원 이상의 정규직은 38.5%인 반면, 비정규직은 9.6%에 불과
 - 비정규직은 100만 원 초과~300만 원 미만 비율이 전체의 6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데 반해, 정규직은 200~400만 원 미만에서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백만 원 단위로 구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살펴보아도 약 100만 원 이상의 임금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7]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분포



- 200만 원 이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 차원의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

나. 성별 차이

- 남성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429.7만 원으로 전국 남성 정규직 391.1만 원보다도 높았으며, 여성 정규직 평균임금도 전국보다 높음
-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수원시의 임금이 높은 편. 전반적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

[표 3-7]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단위 : 만원)

고용형태	수원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429.7	308.0	391.1	287.9
비정규직	265.2	171.2	239.7	153.6

- 수원시 남성 정규직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약 258만 원의 차이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9.8%에 불과함

다. 연령대별 차이

- 정규직 임금은 40대가 457.1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가 438.5만 원, 30대 363.7만 원 순으로 나타남. 정규직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패턴이 나타남

[표 3-8]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고용형태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수원	정규직(a)	289.9	363.7	457.1	438.5	300.8
	비정규직(b)	155.2	223.4	288.2	237.8	176.4
	평균	247.2	333.5	409.8	369.6	221.6
	b/a(%)	53.5%	61.4%	63.0%	54.2%	58.7%
전국	정규직(a)	264.6	333.5	391.3	396.7	307.3
	비정규직(b)	161.6	238.2	239.5	220.1	139.1
	평균	223.9	311.0	350.3	334.0	188.6
	b/a(%)	61.1%	71.4%	61.2%	55.5%	45.3%

- 즉,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공급에 따라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50대 정규직이 30대 정규직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음
- 다만 40대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50대 정규직 중에서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한 정규직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즉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데, 50대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연공급제 속성의 임금상승 혜택을 누리는 노동자들과, 퇴직 후 과거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혼재되어 같은 연령대의 평균임금을 낮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수원시 비정규직 평균임금도 40대가 288.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 30대, 60대 이상, 20대의 순서였음
-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20대 이하와 60세 이상을 비교해 보면, 수원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60세 이상에서 20대 이하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보임
 - 반면에 전국 수준에서는 비정규직일 경우 20대가 60대보다 월평균 임금이 높음. 결과적으로 수원에서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낮고 6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의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40대에서 가장 적고,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4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같은 연령대 정규직 노동자의 63.0%인데 반해,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3.5% 수준임
 - 전국 수준에서는 60대 이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수원에서는 60대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정규직 대비 58.7%로 전국 대비 13.4%p 높은 편. 수원은 업종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산업에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는데, 이 산업 및 직종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라. 학력별 차이

- 학력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수원시 노동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보임. 다만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수원시 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높은 수준
- 정규직 임금수준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보면, 전국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적고,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수원시는 고졸에서 임금격차 수준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수원시의 저학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표 3-9]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고용형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수원	정규직(a)	232.6	328.8	410.6
	비정규직(b)	144.5	190.8	269.5
	평균	169.5	266.4	379.7
	b/a(%)	62.1%	58.0%	65.7%

고용형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전국	정규직(a)	237.7	294.6	383.7
	비정규직(b)	125.8	181.6	242.7
	평균	152.7	243.6	349.4
	b/a(%)	52.9%	61.6%	63.2%

마. 근무기간별 차이

-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하로 근무한 노동자들보다 그 이상의 재직기간을 가진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다소 감소
 -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1년 이하의 재직기간을 가진 경우 정규직 대비 50% 후반에서 60% 초반 수준인데 반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78.2%, 10년을 초과한 경우 77.9% 수준으로 높아짐
 - 전국 수준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근속 5년 초과 구간에서부터 수원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전국 대비 적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0]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고용형태		6개월 이하	6개월~1년 이하	1~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초과
수원	정규직(a)	291.9	303.7	322.8	384.0	512.3
	비정규직(b)	184.3	171.0	208.2	300.3	399.3
	평균	227.5	237.2	287.2	370.2	497.1
	b/a(%)	63.1%	56.3%	64.5%	78.2%	77.9%

고용형태		6개월 이하	6개월~1 년 이하	1~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초과
전국	정규직(a)	279.9	284.1	300.8	344.3	454.3
	비정규직(b)	158.9	186.3	203.5	238.8	305.0
	평균	195.6	237.8	268.8	322.1	435.1
	b/a(%)	56.8%	65.6%	67.7%	69.4%	67.1%

바. 산업별 차이⁶⁾

- 수원시에서 임금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 대해 살펴보면, 정규직 임금은 417.0만 원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255.7만 원임
 - 2021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수준이 더 높았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다시금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남
 - 수원시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인데, 수원시 인근의 전자 및 자동차 관련 제조대기업 사업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50% 미만인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각 43.0%, 48.0%, 45.5%임

6) 산업별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표 3-11]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농림어업	정규직(a)	-	329.5	부동산업	정규직(a)	268.0	294.0
	비정규직(b)	-	153.4		비정규직(b)	213.9	214.6
	b/a(%)		46.6%		b/a(%)	79.8%	73.0%
광업	정규직(a)	250.0	342.1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정규직(a)	496.2	432.7
	비정규직(b)	250.0	287.2		비정규직(b)	454.8	312.3
	b/a(%)	-	84.0%		b/a(%)	91.7%	72.2%
제조업	정규직(a)	417.0	357.1	사업시설관 리및지원 대서비스	정규직(a)	276.9	284.3
	비정규직(b)	255.7	244.7		비정규직(b)	197.0	195.8
	b/a(%)	61.3%	68.5%		b/a(%)	71.1%	68.9%
전기가 스증기 및공급 업	정규직(a)	606.0	460.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정규직(a)	368.5	375.5
	비정규직(b)	460.0	321.4		비정규직(b)	158.4	127.2
	b/a(%)	75.9%	69.8%		b/a(%)	43.0%	33.9%
수도하 수폐기 물처리 업	정규직(a)	335.6	328.5	교육서비스 업	정규직(a)	390.8	375.8
	비정규직(b)	200.0	250		비정규직(b)	177.9	183.1
	b/a(%)	59.6%	76.1%		b/a(%)	45.5%	48.7%
건설업	정규직(a)	376.6	358.1	보건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정규직(a)	313.8	289.7
	비정규직(b)	247.2	253.5		비정규직(b)	172.3	134.1
	b/a(%)	65.6%	70.8%		b/a(%)	54.9%	46.3%
도소매 업	정규직(a)	317.7	318.1	예술,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정규직(a)	263.1	294.9
	비정규직(b)	143.5	174.6		비정규직(b)	126.4	177
	b/a(%)	45.2%	54.9%		b/a(%)	48.0%	60.0%
운수및 창고업	정규직(a)	316.7	331.1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 업	정규직(a)	296.7	276.4
	비정규직(b)	242.7	228.1		비정규직(b)	154.7	166.2
	b/a(%)	76.6%	68.9%		b/a(%)	52.1%	60.1%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숙박및 음식점 업	정규직(a)	253.5	253.2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정규직(a)	-	146.7
	비정규직(b)	137.5	132.9		비정규직(b)	96.4	108.4
	b/a(%)	54.2%	52.5%		b/a(%)		73.9%
정보통 산업	정규직(a)	431.0	412.6	국제 및 외국기관	정규직(a)	-	411.3
	비정규직(b)	363.8	310.5		비정규직(b)	-	273.0
	b/a(%)	84.4%	75.3%		b/a(%)		66.4%
금융보 험업	정규직(a)	478.9	488.7	전체	정규직(a)	384.4	351.3
	비정규직(b)	396.3	282		비정규직(b)	216.1	192.7
	b/a(%)	82.8%	57.7%		b/a(%)	56.2%	54.9%

사. 직종별 차이

-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72.8%. 가장 임금격차가 큰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51.9%에 불과함

[표 3-12] 직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구분		수원	전국
관리자	정규직(a)	683.6	687.1
	비정규직(b)	-	610.8
	b/a(%)	-	8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정규직(a)	454.2	401.0
	비정규직(b)	316.0	265.4
	b/a(%)	69.6%	66.2%
사무 종사자	정규직(a)	368.0	357.5
	비정규직(b)	262.1	234.8
	b/a(%)	71.2%	65.7%

구분		수원	전국
서비스 종사자	정규직(a)	266.1	277.6
	비정규직(b)	138.1	136.0
	b/a(%)	51.9%	49.0%
판매 종사자	정규직(a)	269.8	296.8
	비정규직(b)	199.4	182.6
	b/a(%)	73.9%	61.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정규직(a)	-	290.2
	비정규직(b)	-	210.1
	b/a(%)	-	7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정규직(a)	333.0	322.1
	비정규직(b)	242.3	254.9
	b/a(%)	72.8%	79.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정규직(a)	360.2	319.2
	비정규직(b)	225.0	240.2
	b/a(%)	62.5%	75.3%
단순노무 종사자	정규직(a)	240.6	235.1
	비정규직(b)	153.8	137.4
	b/a(%)	63.9%	58.4%

- 전국 수준에서는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고 숙련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직종 노동자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적게 나타남.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각 79.1%와 75.3%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
- 전국 수준에서도 ‘서비스 종사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큼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적어짐. 5인 미만 사업장의 수원시 비정

규직 노동자는 같은 규모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 대비 55.7%의 임금을 받는데 반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69.5%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음

-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임금격차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0.6%로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 제고를 위한 수원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표 3-13]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비율
(단위 : 만원)

고용형태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수원	정규직(a)	283.3	276.7	330.4	367.2	391.3	515.2
	비정규직(b)	157.9	185.5	197.6	218.1	306.3	358.3
	평균	205.7	237.9	281.5	332.9	372.2	486.9
	b/a(%)	55.7%	67.1%	59.8%	59.4%	78.3%	69.5%
전국	정규직(a)	266.7	289.6	321.2	348.9	372.1	467.4
	비정규직(b)	152.7	174.8	188.9	215.5	253.1	307.3
	평균	199.6	237.5	270.4	308.2	344.6	440.7
	b/a(%)	57.2%	60.3%	58.8%	61.8%	68.0%	65.8%

-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전국 수준에서 살

펴보아도 수원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10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수원시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전국 대비 높아 임금격차도 적은 편

자.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 앞서 살펴본 시급액([그림 3-6] 참조)을 이용해 수원시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을 살펴봄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임금은 단순 총액만을 파악하기에 엄밀하게 계산된 시급액은 아니지만 시급액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음
 - 특히 앞서 산출된 시급액은 주휴만 고려하고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시급액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산출된 시급액임
- 수원시의 최저임금(9,160원) 미만자 규모는 94,104명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 563,005명 중 16.7%임
 - 전국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는 4,873,063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22.7%를 차지
-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을 보면 수원과 전국 모두에서 여성 비율이 2/3에 이르고 있음

[표 3-14] 수원시 최저임금 미만자의 인적 특성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성	남성	33,295	35.4	1,708,472	35.1
	여성	60,809	64.6	3,164,591	64.9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연령	29세이하	23,310	24.8	1,053,478	21.6
	30대	10,707	11.4	515,287	10.6
	40대	14,714	15.6	654,739	13.4
	50대	16,043	17.0	951,366	19.5
	60세이상	29,330	31.2	1,698,193	34.8
합계		94,104	100.0	4,873,063	100.0

- 연령대별로 보면 수원, 전국 모두 60대 이상과 20대 이하 합산 비율이 1/2을 넘고 있음. 수원의 경우 30대와 40대에서 전국 대비 미만자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와 고령층에서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높다는 점은 이들 연령대를 주로 고용하는 업종·직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의미
-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미만자 비율이 전국 대비 낮은 반면에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에서 전국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높음

[표 3-15]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농림어업	-	-	52,604	1.1
광업	-	-	478	.0
제조업	7,003	7.4	507,558	10.4
전기가스증기업	-	-	3,172	.1
하수원료재생업	-	-	13,723	.3
건설업	8,657	9.2	208,598	4.3
도소매업	14,054	14.9	587,702	12.1
운수창고업	2,063	2.2	178,061	3.7
숙박음식점업	14,781	15.7	660,485	13.6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정보통신업	1,317	1.4	54,766	1.1
금융업	533	.6	64,801	1.3
부동산업	3,343	3.6	116,651	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310	2.5	64,085	1.3
사업시설관리업	12,133	12.9	445,529	9.1
공공행정	2,531	2.7	326,279	6.7
교육서비스업	6,308	6.7	257,358	5.3
보건복지서비스업	13,433	14.3	982,767	20.2
예술스포츠여가업	2,239	2.4	98,260	2.0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3,030	3.2	206,499	4.2
자가소비및기타	369	.4	43,063	.9
국제기구	-	-	622	.0
전체	94,104	100.0	4,873,063	100.0

-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가 1만 명이 넘는 수원시 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임
- 직업별 최저임금 미만자를 보면 단수노무자 직종이 3만 8천여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미만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직종.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주력 직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임

[표 3-16] 직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관리자	-	-	4,792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635	11.3	433,499	8.9
사무 종사자	11,778	12.5	456,598	9.4
서비스 종사자	13,786	14.6	923,477	19.0

구분	수원		전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판매 종사자	10,261	10.9	498,834	1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14,529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255	6.6	236,996	4.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332	3.5	301,569	6.2
단순노무 종사자	38,057	40.4	2,002,769	41.1
전체	94,104	100.0	4,873,063	100.0

-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가 1만 명이 넘는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3)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비교

가. 전체 임금노동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2019년 44.0시간에서 2022년 43.7시간으로 0.3시간 감소.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2019년 37.8시간에서 2022년 34.1시간으로 3.7시간 감소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의 감소폭이 정규직보다 큼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34시간대로 줄어든 이후 정체된 상황을 보임

[표 3-17]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2022년
주당 노동 시간	정규직	44.0	44.0	43.6	43.7	42.7
	비정규직	37.8	34.4	34.8	34.1	32.6
	평균	41.4	38.8	40.6	40.6	39.0

- 향후 노동시간 감소 경향은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추가연장 근로 기한 연장과,
- 연장 근로시간 산출 기준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경향은 당분간은 주춤할 것

나. 성별 차이

- 수원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별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의 주당 노동시간은 42.4시간으로 여성 38.0시간보다 일주일에 약 4.2시간 정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수원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조금 더 긴 편임

[표 3-18]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수원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44.2	42.9	43.2	41.9
비정규직	37.6	30.9	36.4	29.3
평균	42.4	38.0	41.2	36.1

-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6.7시간으로 성별 노동 시간 격차가 더 커짐
- 또한 남성 노동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 차이는 전년 (4.8시간)과 비교해 6.6시간으로 커졌으며, 여성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 차이가 12시간 정도로 확연히 커서 격차가 두드러짐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에게서 전년 대비 노동시간이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원시 여성 비정규직과 전국 여성 비정규직 노동시간 격차는 1.6시간으로 전년 1.5시간과 비교시 거의 변화가 없는 편
 - 여성 비정규직의 짧은 노동시간이 드러내는 함의는 기혼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의 경험과 이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반면, 남성들은 가사업무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기에 비정규직들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 이후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간 추이를 보면 정규직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지난 4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편임
 -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정규직에서는 노동시간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비정규직에서는 여성의 노동시간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표 3-19] 수원시의 고용형태별-성별 노동시간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정규직	44.5	42.9	44.5	42.9	44.0	42.7	44.2	42.9
비정규직	39.9	36.0	36.7	32.0	39.2	31.3	37.6	30.9

다. 연령대별 차이

- 정규직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45.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대 이하가 43.1시간으로 가장 짧아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규직 노동시간은 길게 나타나고 있음
 - 60세 이상의 경우 정규직은 (최상층) 관리자가 다수이면서, 노동시간이 길었을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짐
- 비정규직의 경우 40대가 36.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20대 이하는 30.2시간으로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았음

[표 3-20] 연령대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수원	정규직	43.1	43.4	43.9	44.1	45.1
	비정규직	30.2	36.3	36.5	34.2	33.7
	평균	39.1	41.8	41.8	40.7	37.8
전국	정규직	42.4	42.6	42.7	42.8	43.3
	비정규직	31.3	36.6	35.3	35.3	27.6
	평균	38.0	41.2	40.7	40.1	32.2

- 전국 수준에서는 60대 비정규직이 20대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는데, 수원에서는 20대 이하에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원은 업종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산업에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는데, 이 산업 및 직종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임금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라. 학력별 차이

- 수원시 노동자의 학력별 노동시간을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학력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학력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노동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임.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경우 정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임
-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8.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고졸 43.8시간, 전문대졸 이상은 43.5시간

[표 3-21]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수원	정규직	48.4	43.8	43.5
	비정규직	31.2	33.7	35.7
	평균	36.1	39.2	41.8
전국	정규직	44.5	43.5	42.2
	비정규직	27.2	33.5	34.4
	평균	31.3	39.0	40.3

●● 2022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짧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긴 편
- 중졸 이하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은 고령의 저학력 노동자들이 육체적인 부담으로 인해 단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일 가능성
- 한편, 학력이 낮은 정규직은 대체로 시간당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에 소득보전을 위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학력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에 노동시간이 짧을 가능성도 있음
- 정규직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주당 노동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당 노동시간이 긴 패턴은 전국 평균에서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마. 근무기간별 차이

- 수원시 정규직은 대체로 주당 노동시간이 43~44시간으로 근무기간과는 크게 상관없이 비슷하였고, 비정규직은 근속기간 5년 초과에서 노동시간이 확연히 긴 편임
- 전국 수준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42~43시간의 노동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6개월 이하 근무기간을 가진 노동자는 30.0시간인데 비해 근속 5년 초과에서는 35시간대로 확연히 긴 편이며 근속이 늘어날수록 노동시간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임

[표 3-22] 근무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6개월 이하	6개월~1 년 이하	1~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초과
수원	정규직	43.0	44.0	44.0	43.1	44.0
	비정규직	33.1	31.6	34.1	41.6	38.5
	평균	37.1	37.8	40.9	42.9	43.2
전국	정규직	42.8	43.0	42.8	42.8	42.5
	비정규직	30.0	34.2	34.4	35.6	35.4
	평균	33.9	38.8	40.0	41.3	41.6

바. 산업별 차이⁷⁾

-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정규직은 43.8시간, 비정규직은 35.7시간으로 전년과 비교시 노동시간 격차가 벌어짐
 - 2021년에 제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차이가 2.3시간이 었으나 2022년에는 정규직은 2.4시간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전년 대비 8시간 감소해 전체적으로 8.1시간으로 벌어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 조업시간이 줄어든 이후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회복되었을 가능성
- 노동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정규직은 43.3시간, 비정규직은 42.4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7) 산업별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시간을 정규직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표 3-23]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산업·고용형태		수원	전국
농림어업	정규직	-	43.9	부동산업	정규직	41.7	43.0
	비정규직	-	35.0		비정규직	39.7	38.8
	평균	-	37.5		평균	40.3	40.9
광업	정규직	40.0	43.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규직	43.3	41.8
	비정규직		40.3		비정규직	42.4	36.2
	평균	40.0	43.2		평균	43.2	40.8
제조업	정규직	43.8	43.0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임대서비스	정규직	44.6	42.8
	비정규직	35.7	38.4		비정규직	42.2	38.1
	평균	42.5	42.2		평균	43.4	40.3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정규직	49.0	41.4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정규직	43.5	42.6
	비정규직	36.0	37.7		비정규직	27.3	24.2
	평균	43.1	41.0		평균	38.4	36.5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정규직	42.1	43.0	교육 서비스업	정규직	42.9	41.1
	비정규직	40.0	39.3		비정규직	26.7	27.6
	평균	41.9	42.1		평균	36.2	35.4
건설업	정규직	44.6	43.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규직	43.1	41.9
	비정규직	40.1	38.1		비정규직	28.2	24.9
	평균	42.3	40.5		평균	37.2	33.8
도소매업	정규직	43.2	43.0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정규직	49.5	42.8
	비정규직	32.5	32.8		비정규직	22.6	31.8
	평균	40.4	39.5		평균	30.9	36.7
운수 및 창고업	정규직	46.8	44.7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정규직	42.9	43.5
	비정규직	39.2	38.4		비정규직	28.0	32.4
	평균	44.6	42.7		평균	37.3	39.0
숙박 및 음식점업	정규직	47.2	46.4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정규직	20.7	43.1
	비정규직	29.8	29.6		비정규직	-	27.8
	평균	36.3	35.6		평균	20.7	28.0
정보통신업	정규직	42.0	41.6	국제 및 외국기관	정규직	-	40.0
	비정규직	39.4	37.6		비정규직	-	33.1
	평균	41.5	40.8		평균	-	38.7
금융보험업	정규직	43.0	41.5	전체	정규직	43.7	42.7
	비정규직	41.6	37.8		비정규직	34.1	32.6
	평균	42.4	40.2		평균	40.6	39.0

- 노동자수가 세 번째로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의 차이가 매우 큼
 -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43.1시간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28.2시간으로 약 65.4% 수준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 산업이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등임

사. 직종별 차이

-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무시간 차이가 확연함. 비정규직 노동자는 1주 30시간 내외의 노동시간을 보이는 반면에 정규직은 40시간을 초과
- 반면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등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30시간 후반대의 노동을 하고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임

[표 3-24] 직업별 -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구분		수원	전국
관리자	정규직	45.6	42.5
	비정규직	-	39.3
	전체	-	4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정규직	43.2	41.9
	비정규직	34.1	33.3
	전체	41.2	39.8
사무 종사자	정규직	42.7	41.8
	비정규직	38.5	35.1
	전체	42.1	40.6
서비스 종사자	정규직	44.4	44.5
	비정규직	27.9	28.8
	전체	34.0	35.6
판매 종사자	정규직	44.7	43.5
	비정규직	32.9	32.9
	전체	38.4	38.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정규직	-	44.6
	비정규직	-	39.9
	전체	-	4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정규직	45.4	43.6
	비정규직	37.7	38.4
	전체	42.3	41.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정규직	44.9	44.0
	비정규직	37.2	39.8
	전체	43.3	43.1
단순노무 종사자	정규직	45.5	44.1
	비정규직	34.3	29.8
	전체	38.1	33.4
전체	정규직	43.7	42.7
	비정규직	34.1	32.6
	전체	40.6	39.0

아. 사업체 규모별 차이

- 수원시 정규직은 5인 미만 규모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다음으로 300인 이상 규모에서 44.0시간으로 나타남
- 대체로 수원시 정규직은 규모와 상관없이 43시간~45시간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정규직은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경향. 이는 전국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5]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

고용형태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수원	정규직	45.2	43.6	43.7	42.9	43.7	44.0
	비정규직	32.9	32.1	33.0	34.8	40.4	37.2
	평균	37.6	38.7	39.7	41.1	43.0	42.7
전국	정규직	43.8	42.9	42.5	42.4	42.7	42.4
	비정규직	30.1	32.0	32.7	34.2	36.5	35.7
	평균	35.7	37.9	38.8	39.8	41.3	41.3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4.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의 특성

1)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가. 거주지 분포

- 수원시 소재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임금노동자 수는 433,972명으로 2021년 411,698명 대비 약 2만 2천여 명 증가. 즉 수원시의 일자리 수가 1년 동안 22,000여 개 증가했음을 의미.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수보다 약 12만 9천여 명이 적음
- 수원시 내 일자리 숫자가 수원시 임금노동자보다 적는데, 이는 수원시가 경기도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기 때문. 즉 수원에서 거주·생활을 하고, 낮에는 타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미
- 수원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수원시가 6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서울특별시, 용인시 순서로 나타남. 수원시 노동자들은 화성시로 약 7만 3천여 명이 일하러 가지만 수원에 일하러 오는 화성시 노동자는 약 3만 6천여 명으로 차이가 두드러짐

[표 4-1] 수원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거주지

지역	인원(명)	비율(%)	지역	인원(명)	비율(%)
서울시	27,769	6.4	경기의왕시	2,833	.7
인천시	6,796	1.6	경기하남시	752	.2
기타 광역시	570	0.1	경기용인시	22,467	5.2
경기수원시	288,047	66.4	경기파주시	563	.1
경기성남시	10,228	2.4	경기이천시	521	.1

지역	인원(명)	비율(%)	지역	인원(명)	비율(%)
경기의정부시	393	.1	경기안성시	83	.0
경기안양시	7,173	1.7	경기화성시	36,271	8.4
경기부천시	834	.2	경기광주시	849	.2
경기광명시	1,190	.3	경기여주시	143	.0
경기평택시	3,989	.9	경기양평군	121	.0
경기동두천시	64	.0	강원춘천시	130	.0
경기안산시	5,744	1.3	강원원주시	310	.1
경기고양시	1,154	.3	충북청주시	233	.1
경기과천시	923	.2	충북음성군	100	.0
경기구리시	331	.1	충북증평군	33	.0
경기도안시	5,449	1.3	충남천안시	1,077	.2
경기시흥시	2,756	.6	충남아산시	132	.0
경기군포시	3,909	.9	충남예산군	35	.0
			합계	433,972	100.0

나. 개인적 특성

- 2022년 수원시 일자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8.0%로 전국의 45.0%와 비교하면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이는 수원시가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기에 남성들은 타지로 나가서 근무하고 여성들은 수원시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한편 수원시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비율은 2021년 45.7%에서 2022년에는 2.3%p 증가한 48.0%임. 2022년 들어서 방역정책 완화로 서비스업 부문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 노동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 중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2.7%를 차

지함. 뒤이어 50대 임금노동자도 21.4%로 나타남

- 전국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했을 때 20대 이하 노동자의 비중이 수원은 18.6%로 전국 17.5%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편임. 반면에 6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 비율은 전국 대비 낮은 편임

[표 4-2] 수원시 소재 사업체 소속 임금노동자 일반적 특성

구분		수원시 사업체		전국	
		노동자수(명)	비율(%)	노동자수(명)	비율(%)
성	남성	225,486	52.0	11,826,540	55.0
	여성	208,486	48.0	9,679,168	45.0
연령	29세 이하	80,515	18.6	3,763,633	17.5
	30대	98,601	22.7	4,554,908	21.2
	40대	107,956	24.9	4,982,072	23.2
	50대	92,778	21.4	4,784,848	22.2
	60세 이상	54,122	12.5	3,420,246	15.9
학력	중졸이하	33,721	7.8	2,306,734	10.7
	고졸	140,577	32.4	7,744,886	36.0
	전문대졸 이상	259,674	59.8	11,454,088	53.3
근속 기간	6개월 이하	93,395	22.9	5,226,969	25.8
	6개월~1년 이하	27,160	6.7	1,481,407	7.3
	1~5년 이하	124,946	30.6	6,252,208	30.8
	5~10년 이하	59,198	14.5	2,875,132	14.2
	10년 초과	103,701	25.4	4,445,732	21.9
종사 상 지위	상용직	329,497	75.9	15,640,712	72.7
	임시직	75,445	17.4	4,714,833	21.9
	일용직	29,030	6.7	1,150,163	5.3
합계		433,972	100.0	21,505,708	100.0

- 학력별로는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92.2%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학력수준은 약간 높음
- 2022년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근무기간을 확인한 결과 1년 초과~5년 이하가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10년 초과가 25.4%로 두 번째로 높았음. 전국 평균 근무기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는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표 2-3] 참조), 성별로 남성의 비중이 낮고, 근무기간이 조금 짧으며, 40대 노동자 비율이 약간 더 높다는 점이 특징

다. 고용형태별 분포

- 수원시 소재 사업체들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은 2021년 61.1%에서 2.0%p 증가. 반대로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2.0%p 하락
 - 2020년은 코로나19 방역정책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이후 2021년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 후 다시 약간 감소함

[표 4-3]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율

구분	2021년		2022년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정규직	251,386	61.1	273,959	63.1
비정규직	160,311	38.9	160,013	36.9
합계	411,698	100.0	433,972	100.0

- 수원시 거주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32.7%라는 점에서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2%p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 36.6%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

라. 산업별-직업별 분포

- 2022년 수원시 소재 사업체들의 산업별 임금노동자 수를 보면 제조업은 2021년 대비 0.8%p 증가한 12.7%로 21개 산업 중 가장 높았으나 2018년 16.5%, 2019년 15.0%와 비교시 최근 제조업 비중이 낮아진 편임. 즉 수원시 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수원시 노동자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도시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 2019년 수원시 제조업 일자리는 61,974개로 최근 3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6,900여 개 감소한 셈
- 수원시 소재 사업체 임금노동자들 비중은 제조업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도소매업 > 교육서비스업 > 건설업의 순서
-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표 2-6] 참조), 숙박및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산업별 규모 및 비율

구분	수원시 사업체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농림어업	75	.0	105,623	.5
광업	-	-	12,837	.1
제조업	55,027	12.7	4,052,455	18.8

구분	수원시 사업체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722	.4	74,053	.3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615	.4	146,400	.7
건설업	37,002	8.5	1,706,354	7.9
도소매업	44,389	10.2	2,145,844	10.0
운수및창고업	15,828	3.6	968,397	4.5
숙박및음식점업	33,634	7.8	1,279,309	5.9
정보통신업	11,519	2.7	894,685	4.2
금융보험업	13,851	3.2	740,092	3.4
부동산업	7,727	1.8	379,398	1.8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45,894	10.6	1,102,091	5.1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	24,791	5.7	1,348,102	6.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23,517	5.4	1,247,698	5.8
교육서비스업	42,603	9.8	1,622,565	7.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2,107	12.0	2,620,530	12.2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5,106	1.2	324,445	1.5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16,554	3.8	650,589	3.0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1,010	.2	71,165	.3
국제 및 외국기관	-	-	13,076	.1
합계	433,972	100.0	21,505,708	100.0

-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33.0%로 2021년 32.5%보다 0.5%p 증가함. 전문가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와 비슷한 경향.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가 19.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능원과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비중은 1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다만 단순노무자의 비중은 2022년 15.7%로 세 번째로 많음
- 전체적으로 수원시 거주 노동자와 직업 분포는 비슷하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적어서 생산직종의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이 특징

[표 4-5]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직종별 규모 및 비율

구분	수원시 사업체		전국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관리자	4,385	1.0	401,094	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3,408	33.0	4,964,869	23.1
사무종사자	86,028	19.8	4,559,169	21.2
서비스종사자	44,266	10.2	2,179,630	10.1
판매종사자	29,808	6.9	1,521,817	7.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	49,488	.2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28,094	6.5	1,813,383	8.4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30,003	6.9	2,245,857	10.4
단순노무 종사자	67,979	15.7	3,770,401	17.5
합계	433,972	100.0	21,505,708	100.0

2)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 수원시 소재 사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21년 309.5만 원에서 2022년 319.8만 원으로 약 10만 원가량 상승. 전국의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지만 수원시 거주 노동자들의 2022년 평균임금인 329.4만 원보다는 낮은 편
-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집은 수원이지만 인근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수원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미
- 그런데 수원시 사업체 정규직 평균임금은 387.1만 원으로 수원시 거주 정규직 임금 384.4만 원보다 약간 높은 편

-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수원시 거주 노동자들이 216.1만 원인 반면에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들은 204.6만 원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수원시 내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

[표 4-6]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과 주당 노동시간

구분	수원시 사업체 노동자		수원시 거주 노동자	
	월임금(만원)	노동시간	월임금(만원)	노동시간
정규직	387.1	43.6	384.4	43.7
비정규직	204.6	33.3	216.1	34.1
평균	319.8	39.7	329.4	40.6

- 주당 노동시간을 보면 수원시 거주·사업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정규직은 거의 동일하며 수원시 거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수원시 사업체보다 0.8시간 더 길어 전체적으로 수원시 거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0.9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사업체 임금노동자들은 수원시 거주 임금노동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으며, 노동시간은 조금 짧았음.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모두 양호한 편임
 - 이러한 점에서 수원시 소재 사업체 일자리들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수준보다는 낮으며, 수원시에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수원시 일자리 중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즉 수원시내에는 수원시민들의 임금수준을 만족시켜 줄 일자리가 다소 부족하고, 이러한 이유로 특히 비정규직들의 경우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음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5. 산업대분류로 확인한 수원시 임금노동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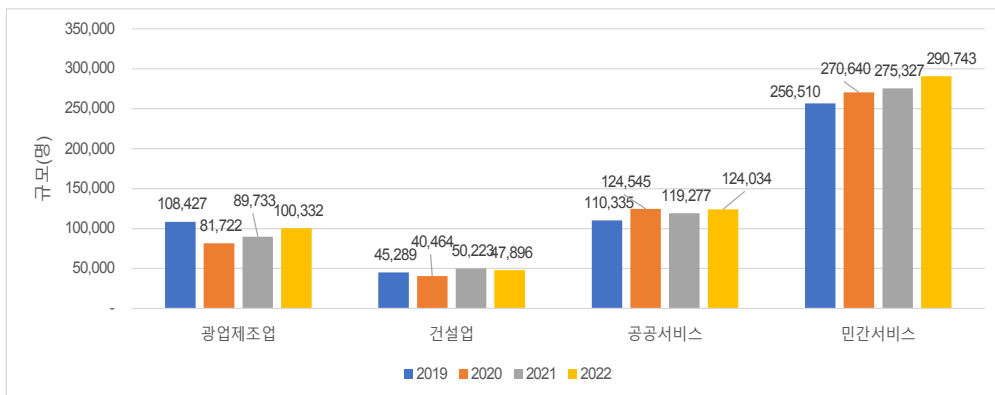
- 주요 업종 및 서비스부문별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준산업분류(대분류)의 현황을 검토
- 이를 위해서 산업 재분류 작업은 표준 산업분류 21개 산업을 <1, 농림어업 2. 광업제조업, 3. 건설업, 4. 공공서비스 5. 기타민간서비스> 5개 산업 대분류(이하 ‘산업5분류’)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1~3차 산업을 기본으로, 서비스부문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구분하였고 건설업의 경우 별도로 분류
 - 1~3번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건설업은 대분류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산업대분류 중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에는 <4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5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16 교육서비스업,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
 - 민간서비스 부문에는 <7 도소매업 8 운수및창고업 9 숙박및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19 협회, 단체, 수리및기타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21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다만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2020년, 2022년에는 조사 참여자가 없었으며, 2019년에는 2명, 2021년에는 1명만이 조사에 참여. 가중치를 부여하면 400여명 중반대 규모로 나타나지만 표본 수가 적어 농림어업 부문은 제외하고 4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 보도록 함

1) 일반적 현황

가. 산업5분류별 분포

- 2022년 수원시 임금노동자를 산업5분류로 분포를 확인한 결과, 우선 농림어업과 광업, 그리고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임금노동자는 수원시에는 없었음
- 수원시에서 고용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이 포함된 광업·제조업 규모는 2019년 108,427명을 정점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만 6천여 명 감소한 후 2021년 89,733명, 2022년에는 100,332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함

[그림 5-1]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5분류별 규모 추이



- 공공서비스 노동자수는 2019년 이후 11만 명~12만 명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민간서비스 노동자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경기에 따라서 임금노동자 수가 증감을 하고 있음. 2020년 4만 명 수준으로 감소 후 2021년에는 1만여 명 증가하였다가 2022년 들어서 다시금 3천여 명 감소

-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시 공공서비스는 1.3만여 명, 민간서비스는 3.4만여 명이 증가하여, 지난 4년 동안 수원시 임금노동자 수 증가 는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 전체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민간서비스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3%에서 2020년 52.3%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2021년, 2022년은 제조업 노동자 규모 증가로 비율치가 각각 51.5%, 51.6%로 약간 하락함

나. 고용형태별 분포

- 다음으로 산업5분류로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비중을 확인한 결과, 정규직 비율은 2022년 제조업>민간서비스>공공서비스>건설업의 순서로 2021년과 동일함

[표 5-1] 수원시 산업5분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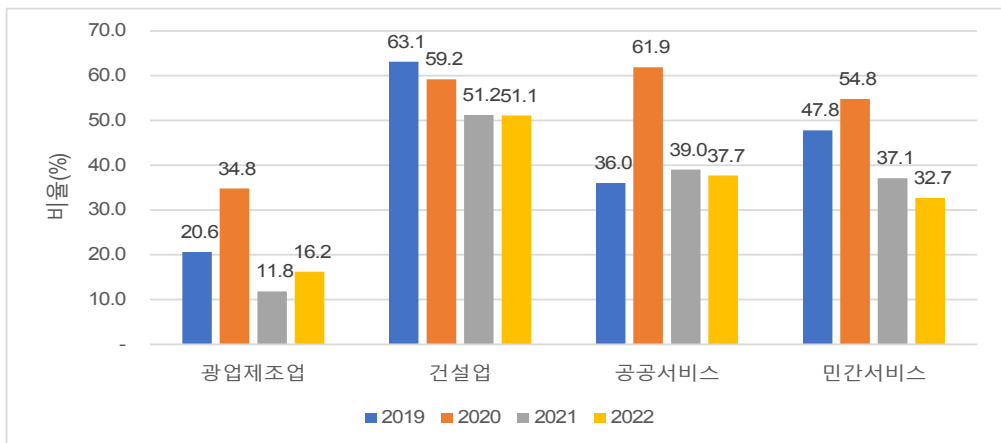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제조업	79,128	10,605	84,075	16,257
	88.2%	11.8%	83.8%	16.2%
건설업	24,525	25,698	23,421	24,475
	48.8%	51.2%	48.9%	51.1%
공공서비스	72,817	46,460	77,228	46,806
	61.0%	39.0%	62.3%	37.7%
민간서비스	173,264	102,062	194,157	96,586
	62.9%	37.1%	66.8%	33.2%
전체	350,195	184,825	378,881	184,124
	65.5%	34.5%	67.3%	32.7%

- 2019년부터 산업5분류 기준 비정규직 비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광업·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

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공공, 민간서비스업 부문과 달리 광업·제조업은 2021년 11.8%로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한 후 2022년 들어서 16.2%로 4.4%p 상승하였음.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2022년 들어서 증가한 결과
- 수원시 산업별 고용 중 제조업 고용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 제조업 일자리의 고용, 노동조건이 서비스업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5-2] 수원시 산업5분류 기준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다. 성별 분포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성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은 남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73.6%로 높게 나타남. 민간서비스 부문에서 남성 노동자 비율이 59.0%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건설업은 예상대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공서비스 부문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

및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짧게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 이러한 점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할 때는 여성 노동문제 및 단시간 노동, 일-가정 병행 등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표 5-2] 수원시 산업5분류 성별 임금노동자 분포

구분	2021년		2022년	
	남성(명)	여성(명)	남성(명)	여성(명)
제조업	67,713	22,020	78,095	22,238
	75.5%	24.5%	77.8%	22.2%
건설업	44,376	5,847	43,282	4,614
	88.4%	11.6%	90.4%	9.6%
공공서비스	36,594	82,683	32,690	91,344
	30.7%	69.3%	26.4%	73.6%
민간서비스	159,103	116,224	171,623	119,120
	57.8%	42.2%	59.0%	41.0%
전체	308,247	226,774	325,690	237,316
	57.6%	42.4%	57.8%	42.2%

라. 연령대별 분포

- 수원시 산업5분류의 연령대별 분포에서 업종별로 확인한 결과, 2022년 광업·제조업의 경우 30대의 비중이 2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로 24.1%를 차지

[표 5-3] 수원시 산업5분류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비율

구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광업·제조업	2021	18.5%	32.8%	24.1%	18.0%	6.5%
	2022	20.4%	27.3%	24.1%	21.8%	6.4%

구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건설업	2021	14.3%	12.6%	26.9%	32.3%	13.9%
	2022	11.5%	18.2%	20.5%	32.1%	17.8%
공공서비스	2021	17.1%	26.1%	27.5%	16.9%	12.4%
	2022	18.3%	21.4%	27.2%	20.8%	12.3%
민간서비스	2021	19.2%	23.3%	23.2%	21.9%	12.4%
	2022	21.1%	24.1%	22.6%	19.8%	12.3%

- 건설업은 50대의 비중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60대 이상의 비율도 17.8%로 높게 나타나 건설업은 고령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 반면 공공서비스 부문은 2022년 40대의 비중이 27.2%로 가장 높으며 30대 노동자 비율은 전년 대비 4.7%p 감소함
- 민간서비스 부문은 30대가 24.1%로 가장 높으며,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19%에서 20% 초반 비중으로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 60세 이상도 12.3%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서,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이 젊은 노동자들 대다수인 민간서비스 부문에 상당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고령 노동자들은 주로 청소 및 경비 등의 사업 시설관리서비스 부문 노동자들로 추정)

마. 학력별 분포

- 학력별 분포에서는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임금노동자 중에서 3/4을 넘고 있음

[표 5-4] 수원시 산업5분류 학력별 임금노동자 비율

구분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이상
제조업	2021	2.8%	35.8%	61.4%
	2022	4.6%	37.0%	58.4%
건설업	2021	11.4%	50.4%	38.2%
	2022	11.5%	48.2%	40.3%
공공서비스	2021	7.4%	19.6%	73.0%
	2022	6.6%	16.8%	76.6%
민간서비스	2021	7.7%	35.6%	56.6%
	2022	7.3%	32.8%	59.8%

- 건설업은 고졸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 이하는 11.5%로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서비스 부문의 경우 학력별 현황에서 중졸 이하가 7.3%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바. 근무기간별 분포

- 근무기간별로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산업5분류를 확인한 결과, 2022년 기준 현재의 업체에서 10년 초과 근무한 장기근무자의 비율은 광업·제조업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서비스 부문이 30.4%로 두 번째
- 지난해에도 제조업에서 10년 초과 장기근속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22년 들어서 10년 초과 장기근속자 비율이 4.9%p 증가해 공공서비스 부문과의 격차가 더 커짐

[표 5-5] 수원시 산업5분류 근무기간별 임금노동자 비율

구분		6개월 이하	6개월~1년 이하	1~5년 이하	5~10년 이하	10년 초과
제조업	2021	17.4%	6.9%	28.6%	16.2%	31.0%
	2022	16.5%	3.0%	32.3%	12.3%	35.9%
건설업	2021	37.7%	9.6%	32.5%	2.7%	17.6%
	2022	51.9%	7.0%	21.6%	8.5%	11.0%
공공서비스	2021	16.6%	9.5%	32.9%	11.2%	29.7%
	2022	18.3%	8.2%	29.5%	13.7%	30.4%
민간서비스	2021	19.1%	7.8%	34.2%	15.9%	23.0%
	2022	21.7%	6.0%	37.4%	15.5%	19.3%

- 6개월 이하 단기근무자의 비율은 산업 특성상 건설업이 51.9%로 매우 높게 나타남. 공공, 민간서비스 부문에서 6개월 이하 근무자가 전년 대비 증가함
- 대체로 건설업과 민간서비스 부문이 장기근무자의 비율은 낮고, 신규 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입직과 전직의 일자리의 이동이 잦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사. 직종별 분포

- 산업5분류로 2022년 직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는 전문가의 비율이 57.2%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민간서비스도 30.7%로 전문가 비율이 다소 높은 편. 제조업은 전문가의 비율이 25.7%로 생산기능직군보다 비중은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반면 건설업은 기능원이 40.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민간서비스 부문은 다른 산업에는 거의 없는 판매종사자가 10.6%를 차지

[표 5-6] 수원시 산업5분류 직업별 임금노동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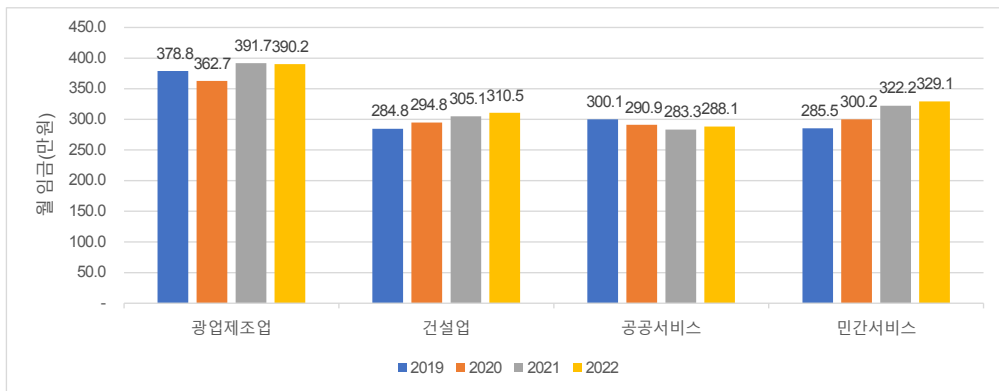
구분		제조업	건설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관리자	인원수	840	1,361	889	373
	비율	.8%	2.8%	.7%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원수	25,764	7,341	70,911	89,373
	비율	25.7%	15.3%	57.2%	30.7%
사무종사자	인원수	25,188	6,935	24,310	60,650
	비율	25.1%	14.5%	19.6%	20.9%
서비스종사자	인원수	0	0	16,849	23,473
	비율	0.0%	0.0%	13.6%	8.1%
판매종사자	인원수	1,457	521	0	30,938
	비율	1.5%	1.1%	0.0%	10.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인원수	-	-	-	-
	비율	-	-	-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인원수	11,848	19,423	2,669	11,343
	비율	11.8%	40.6%	2.2%	3.9%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인원수	26,946	2,176	976	18,875
	비율	26.9%	4.5%	.8%	6.5%
단순노무 종사자	인원수	8,290	10,139	7,431	55,717
	비율	8.3%	21.2%	6.0%	19.2%

- 제조업은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비중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직업 분포와 다소 차이. 이는 수원시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경우 인근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사무관리직들이 수원에서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건설업과 민간서비스 부문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각각 20.4%, 1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월평균 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확인한 결과, 2022년 광업·제조업이 390.2만 원으로 다른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지만 2021년 대비 임금은 약간 하락
 - 건설업의 경우 2019년 284.8만 원에서 2022년 310.5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
 - 공공서비스의 경우 2022년 288.1만 원으로 4개 부문 중 평균임금이 가장 낮음
 - 민간서비스 부문의 월평균 임금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018년 285.5만 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329.1만 원까지 상승함

[그림 5-3] 수원시 산업5분류별 월평균 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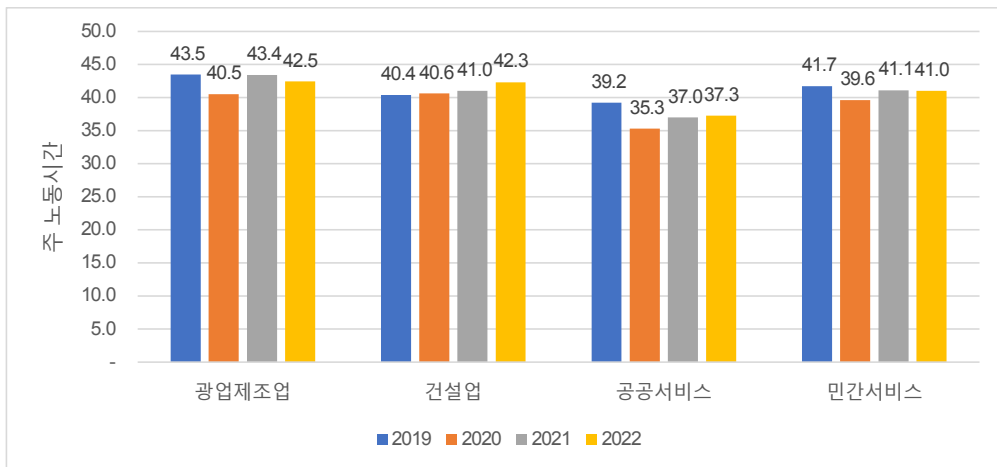


- 산업5분류별로 주당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시간 감소 추세에 2019년 제조업이 43.5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이후 약간 감소. 2022년에는 42.5시간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가장 긴 노동시간임
 - 2020년에는 건설업이 40.6시간으로 가장 길었지만 제조업 40.5시

간과는 별 차이가 없음. 공공서비스부문은 2019년 39.2시간에서 2022년에는 37.3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감소

- 제조업이 임금수준은 높지만 노동시간도 긴 편이며, 공공서비스 부문은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민간서비스는 2020년 2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코로나19 영향 영향으로 판단됨

[그림 5-4] 수원시 산업5분류별 주당 노동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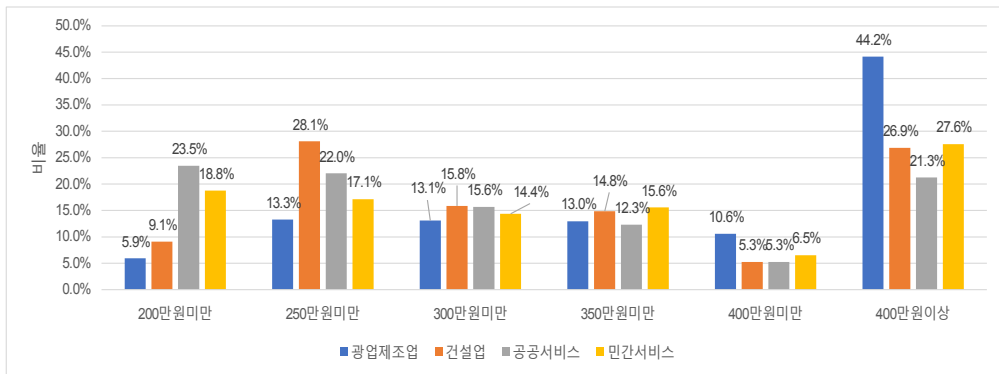


-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구간별로 노동자들의 분포를 확인하여, 고 임금 군과 저임금 군의 분포를 확인함
 -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하여 월 2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의 산업부문 별 비중을 확인한 결과 공공서비스에서 23.5%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은 5.9%로 가장 낮은 편이었음
- 반면 월 4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제조업이 44.2%로 가

장 높았으며, 공공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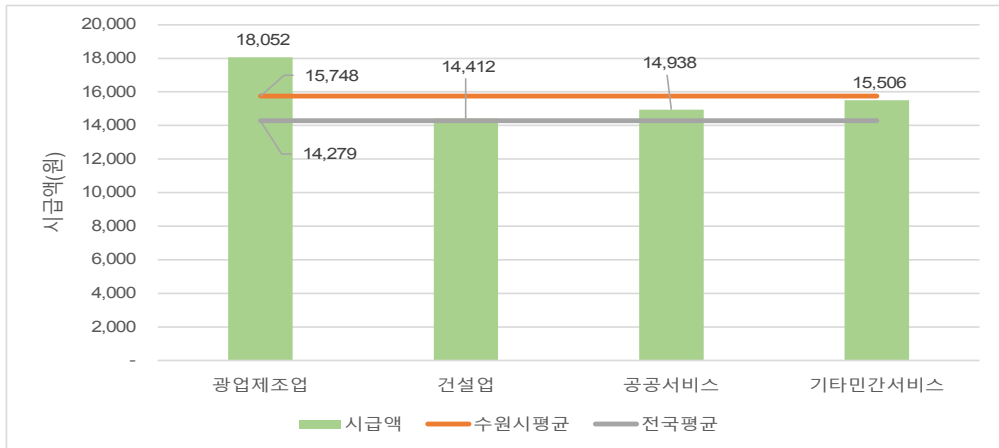
- 제조업과 민간서비스업은 400만 원 이상 구간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업은 200만 원 초과~250만 원 미만 구간에서, 공공서비스업은 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림 5-5] 수원시 산업5분류별 임금 구간별 분포



- 노동시간을 고려한 시급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은 18,052원으로 역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서비스가 15,506원으로 두 번째였음. 건설업과 공공서비스업은 각각 14,412원, 14,938원
- 공공서비스는 월평균임금은 가장 낮았으나 시급은 3번째로 높은 수준. 공공서비스 부문의 낮은 월평균임금은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도 한 요인임

[그림 5-6] 수원시 산업5분류별 시급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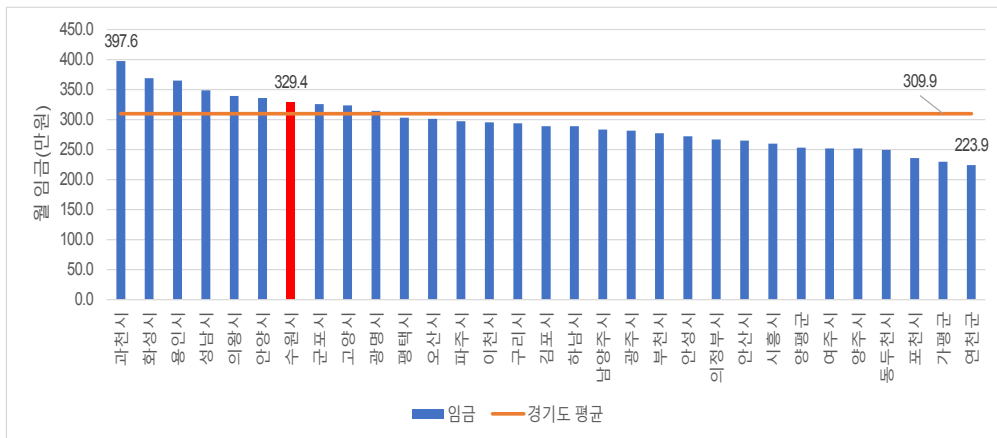
6

마무리하며 : 경기도 지역비교와 정책 함의

6. 마무리하며 : 경기도 지역비교와 정책 함의

- 2018년 이후 수원시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대체로 전국평균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 낮은 편. 2019년에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이후 다시금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 노동자 분포에서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업종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정규직이 다수인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양호한 편. 하지만 최근 2년간 수원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제조업 노동자의 비중이 약간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는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감소함
- 수원시가 속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2022년 평균임금을 비교한 결과 수원시는 과천시(397.6만 원), 화성시(369.0만 원), 용인시(364.9만 원), 성남시(348.8만 원), 의왕시(339.2만 원), 안양시(335.8만 원) 다음인 7번째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높은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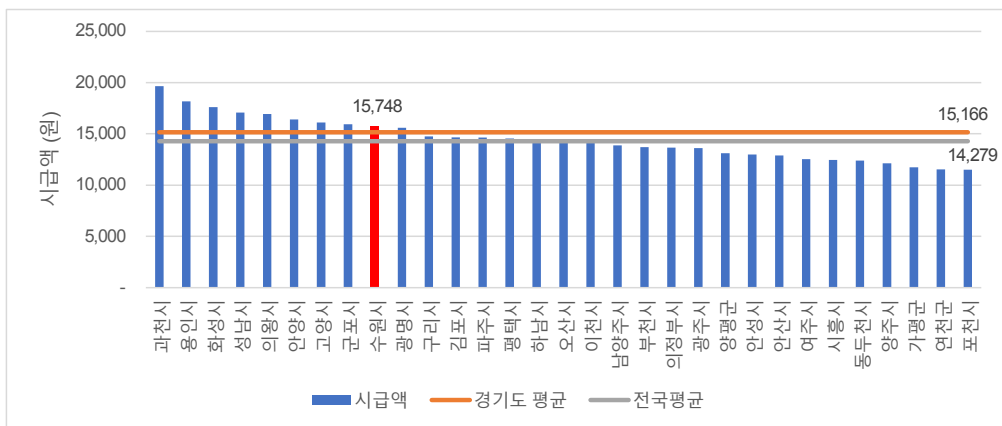
[그림 6-1]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별 임금수준



노동시간은 순위가 1계단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이 더디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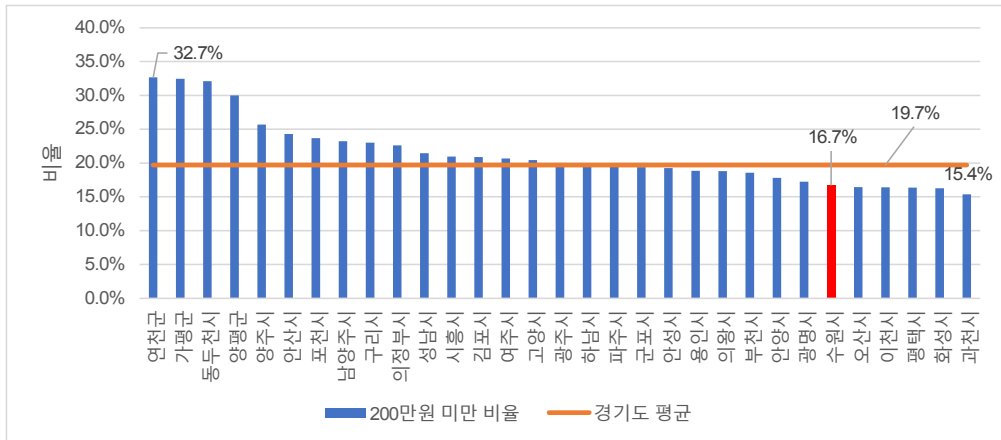
- 다음으로 노동시간을 고려한 평균시급을 비교한 결과 수원시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15,748원으로 9번째로 높게 나타남.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7번째였으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에 나타난 결과

[그림 6-3]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별 시급액



- 경기도 31개 시군별 월급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는 16.7%로 경기도 내에서 6번째로 낮았음. 평균임금은 7번째로 양호했으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6번째로 양호한 순위를 유지

[그림 6-4] 경기도 지자체별 월 임금 200만원 미만자 비율



- 임금, 고용으로 살펴본 수원시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음
 - 수원시 소재 사업체 일자리도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나, 수원시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수준보다는 낮으며, 수원시에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반대로 민간 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시 노동정책의 핵심 대상이 점진적으로 광의의 서비스업 영역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
 - 서비스업 부문은 제조업과 비교시 임금, 노동시간 등 핵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내 취약 계층인 기혼 여성 노동자가 다수 취업하는 산업으로서
 - 서비스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노동 의제와 정책 개발 필요